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린인 정기로 빛아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제894호

개교기념호 지면 안내

개교 제61주년 축하메시지
>> 02

특집
안에서 보는 제주대학교
밖에서 보는
>> 03

보도
사설 - 개교 61주년, 새로운 시작
61주년 개교기념식 24일 개최
박물관서 개교기념 전시 연다
>> 04

보도
허향진 총장과 학생 간담회 열려
LINC사업단 전국 최우수 비결은?
>> 05

기획
취업을 잡아라 <10> 제주반도체
JDC 대학생 아카데미
>> 06

특집
대학 출입자가 본
'제주대의 현실과 과제'
>> 08

특집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김창인 회장의 제주대 사랑
>> 09

특집
변호사 시험 합격한
본교 학부출신 동문들
>> 10

여론
시론 - 88만원세대 극복하는 길
>> 11

특집
제주대 미니 기네스북
3·5행시 '제주대' · '제주대학교'
>> 12



다음 신문은 6월 5일에 발행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른 빛의 제주대를 만들자

만물이 생동하는, 녹음(綠陰)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한라산 탐라계곡 서쪽 해발 1200m지점에 소나무가 곳곳에 서 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캠퍼스에도 꽃과 나무가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다. 계절이 지남에 따라 캠퍼스와 한라산의 빛깔은 달라지지만 개교 61주년을 맞이한 제주대의 대학정신은 푸른 솔처럼 그대로다. 진리와 정의, 창조는 비와 바람에 깎이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조나 유행이 있는 법이지만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본질과 사명을 훼손하지 않으며 발전해 나가는, 지성인의 공동체를 꿈꾸어 본다.

△신용만 (사진작가) =제주도미술대전초대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회원,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본부 부분부장

축시

그래도 그대는 초록

- 개교 61주년에 부쳐

허영선

여기까지 왔다, 그대는
파도와 싸우며 아라별 거친 눈바람 헤치며
섬팡의 슬픔 굴리고 섬팡의 고통 사이며
여기까지 왔다, 그대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공들인 이 타에서
그때도 지금도 그대는 타는 초록
그대의 시선은 태평양, 세계의 중심이라네
우리가 그대의 시간을 온전히 잡을 수 있다면
어찌 오늘이 상한 오늘이 되겠는가
그대, 우리의 흘러간 어제여
그대, 우리가 도달할 미래여
허영게 머리칼 날리며 어제가 갔다
지울 수 없던 청춘의 그날
언약처럼 당신의 가슴 위에서 피고 지던
뜨거운 피, 돌고 돌던
근력으로 버티던 어제였다네

가파른 숨결 너머 시간의 골짜기 파이고 파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뛰어 넘었네
눈부신 나이에 그대를 알았고
눈부신 나이에 그대를 떠났던 이들
문득 돌아와 고향 품에 안기듯 당신만한 가슴이 어디 있으랴
가랑잎 구르는 슬픔에도 가슴 저미던
흔들리던 청춘에 그대를 알았고 그대를 사랑했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낸 곳
진리에, 정의에, 창조에 가슴 뛰고 환호하던 곳
불의에 분노하던 청춘의 한 시대 문헌 곳
당신의 예순하나 봄은 왔지만
그래도 당신은 늙지 않는 연두라네
오늘은 봄이 이 대지의 생명이 눈뜨고 환호하는 시간
내일의 봄도 당신의 늑골까지 눈부실 때
오늘의 봄은 곧 내일의 봄이 되리라

이제 본관으로 이르는 길가에 선 성성한 굴무기낭이
그대를 지켜보는 동안
나 또한 그대를 지켜보리라
오래오래 초록으로 남아

1980년 <심상> 신인상 당선, 시집으로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뿌리의 노래>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

이어도 사나 쳐라 쳐 잘도 한다 이어도 사나
[동김영리: 노젓는 소리 후렴구 중]

「新三多」시대가 열립니다.

국내외 **자본**이 몰려들고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제주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의 꿈이 영글어갑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개교기념식사

‘제2의 창조적 도약’ 원년 될 것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내외귀빈 여러분 ! 그리고 항상 대학 발전을 염원하고 실천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

김영랑 시인은 ‘5월’을 역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가진 계절로 예찬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정기가 솟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대학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교 6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힘찬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1952년 5월 27일 4개 학과, 전임교원 8명, 신입생 58명의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과 우리의 열정은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했지만 명예로운 출발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대학의 성장을 이끈 동력이요 자긍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대학교는 9개의 대학원, 12개의 단과대학, 1200여명의 교직원, 1만2000여명의 재학생 그리고 6만3400여명의 동문을 가진 명실상부한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우리대학을 거쳐 간 선배교직원과 동문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분들의 공적을 가슴 속 깊이 새겨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취임하면서 ‘글로벌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의 기치 아래 전국 2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전 분야 인증을 획득하였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중앙일보 ‘교육여건부문’ 평가에선 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만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13개의 신규 국책사업을 유치, ‘적지만 강한 우리대학의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LINC 사업은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마지막 순간에 어렵게 선정되었지만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LINC 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호남제주권 현장밀착형’ 사업평가에서 1등을, 전국단위에서도 2등을 했습니다. 우리대학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였습니다.

조선일보 등 중앙지의 보도기사와 ‘지방변전 깨뜨린 제주대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서울신문 사설이 게재될 정도로 제주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사회는 점점 ‘도덕성과 인간미를 구비한 교양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은 각종 평가의 주요 핵심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과 동시에 이의 중요성을 인식, 직업능력개발원을 취업전략본부로,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본부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기초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이의 성과들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회 변화사 시험에선 당해 졸업생 기준 합격률이 81.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사법, 외무, 행정 등 3대 국가고시의 합격자를 2009년부터 매년 배출함으로써 다른 지방대학의 부러움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형성케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내가 대학교이고 대학이 나’라는 일체감 속에서 대학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2월에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은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입니다.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인하’ 요구는 대학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회 역시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학생인구의 절대 감소는 대학 간의 무한 경쟁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변화와 도전’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를 면치 못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한 창의적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진솔한 소통과 대학가족체로서의 통합’의 기치 아래 내부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한 대학공동체 실현을 위



허항진 총장

61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창조적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대학 위상과 역량을 가능하는 주요 핵심지표에 대해 ‘전년 대비 10% 향상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발전연구단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제 2의 도약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대학 가치의 재발전과 발전의 동력화를 위해 비교우위적인 특성과 분야를 도출,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진흥연구비지원사업 신설, 논문발표 장려금 및 예술 창작활동 지원금 상향 등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 연구 경쟁력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적인 규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더불어 성과에 있는 곳에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대학편제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취입을 제고를 위해 경력개발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 취업 및 창업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한 기초교양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굵직한 시설 사업들이 착수 혹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3도서관 · 수의과대학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과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학곡동 의학전문대학원 신축공사는 7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재정적 한계를 이야기 합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인하 요구는 더욱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LINC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올해 신규 국책사업과 학술연구비 300억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는 등록금 80% 인상과 같은 효과입니다.

교수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방대학이기에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이 총장인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 동안 3년간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와 대학경영의 노하우는 결코 교수님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발전기금 유치 역시 중요한 대학재원의 확충방안입니다. 저와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통해 올해 안에 발전기금 1,000억원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 모두가 행복해 하고 제주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행복한 제주대학공동체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는 다른 국내대학들에게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혁신하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대학교 가족 모두의 신뢰와 포용, 그리고 창조적 협조와 지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는 자양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61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도민 그리고 대학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24일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낭만이라고 하면 대학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서도 장미의 계절 5월은 우리나라 많은 국립대학들이 개교기념을 축하하는 축제인 날이 펼쳐집니다. 이때가 대학생활에서는 가장 낭만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중간고사에서 쓴 잔을 마셔본 신입생들은 뭔가 정신을 차려 보려고 하는데 때 아닌 북방을 만난 듯하기도 할 것입니다.

개교 61주년,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제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이젠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가 국립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30년, 1982년 5개 단과대학 2개 대학원으로 출발한 국립제주대학교가 그 후 또 다시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환갑의 나이와 함께 12개 단과대학,

9개 대학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만 성장시키질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무수한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교 61주년을 맞이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글로벌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교 61주년을 맞이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글로벌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



안민찬 기성회장

대학생에 꿈과 비전을 주는 특별도

제주대학교 개교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52년 개교 이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로 배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충실하게 닦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 호흡을 같이하며 대한민국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시대의 명품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개 학과, 신입생 58명으로 처음 시작했던 제주대학교가 지난 61년간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헌신해 온 수많은 교육자들과 배움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던 제주대학을 거쳐 간 많은 학생들의 고수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면을 빌려 지금의 제주대학교가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해 온 모든 분들과 61년 제주대 동문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주는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맞고 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한 바람과 물, 농축수산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이 본격 육성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달성,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으로 세계에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순수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넥슨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들을 비롯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제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대학인 제주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제주대학교에서 배출해낸 수많은 인재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제주대 연구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무엇보다 제주대학교 학생여러분들이 지성의 전당에서 키운 꿈과 비전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개교 61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백년대계 교육, 꾸준한 준비가 중요

사랑하는 후배 재학생 여러분! 허항진 총장님을 비롯한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제주대가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았습니다. 61만여 동문과 함께 61번째 생일을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52년, 우리 선배들은 가장 먼저 대학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학 설립을 추진했던 선배들의 해안과 제주사랑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초급대학으로 단출하게 시작한 우리 대학은 80년대 용담캠퍼스에서 아라캠퍼스로의 이전과, 1982년 종합대학교 승격을 계기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이제 제주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가 없는 제주도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대는 지난 60년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제주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전 분야 인증을 받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교육여건 부문’ 평가에선 국내대학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24개국, 146개 대학, 23개 기관과 학술교류 또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 수는 240여 명으로 3년 전보다 6배나 늘었고 외국인 재학생도 1000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이 이제는 ‘말도 제주도, 사람도 제주로’라고 바뀌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명문 대학으로 도약을 통해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

으로 100년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구성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제주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지역사회의 밀착 경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세계와의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세계 속으로 나가는 것도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제주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대학교의 100년대계를 위한 큰 발기능에 우리 총동창회는 언제나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대학교의 개교 61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온 동문과 함께 기원합니다.



송석인 교수회장

‘대학의 사명’을 깊이 고뇌하자

해마다 기념하는 개교 기념일,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걸어 가야할 길을 구상해 봅니다. 1952년 5월 27일, 4개 학과, 전임교원 8명, 신입생 58명의 도립 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우리 제주대학교. 오늘의 우리 제주대학교는 9개 대학원, 12개 단과대학, 1,200명의 교직원, 12,000여명의 재학생, 63,000여명의 동문을 둔 거대한 국립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대학의 환경은 다른 국립대에 비하여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국립대학이라기보다는 변방의 지방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대학은 과거의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이미지를 털고 지역거점국립대학이라는 호칭과 함께 제주대학교의 명함을 자랑스럽게 건네줄 정도입니다. 오늘의 우리 대학은 질적·양적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당당하게 자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바탕이 되어주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 동문님들, 우리 대학에 봉직하셨던 교직원님들 그리고 제주도민의 땀과 지지가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래 우리대학은 여러 분야에서 대학을 빛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 중앙언론사 대학평가 우수, 공학계열 공학교육인증, BK21사업평가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LINC 사업의 최우수 평가,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후유복제실험의 성공, 우수한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변화사시험합격을 거머쥐었다 1위 등 나열하기에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대학의 연령도 60대를 넘었습니다. 신출내기 대학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연륜을 지닌 대학입니다. 이제 우리대학만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성찰하여 비전을 가꾸어나가야 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대학의 발

전에 헌신한 과거 선배들에게 부끄럼 없고, 우리 이름이 제주대학교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제주대학교”라는 슬로건을 제안합니다.

교수의 한사람으로서 대학사회에 대한 인식을 걱정해 봅니다. 대학이 예전에는 지성의 전당이었으며, 학문의 상아탑이며,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효율의 전형이며, 그들만의 성(城)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세상과는 유리된 사회에서 호의호식만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견뎌야 새겨 들어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대학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깊은 고뇌를 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성숙한 대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자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수 한 사람의 열정이 학생 몇 백명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교기념일에 해 봅니다.

전해 헌신한 과거 선배들에게 부끄럼 없고, 우리 이름이 제주대학교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제주대학교”라는 슬로건을 제안합니다.

교수의 한사람으로서 대학사회에 대한 인식을 걱정해 봅니다. 대학이 예전에는 지성의 전당이었으며, 학문의 상아탑이며,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효율의 전형이며, 그들만의 성(城)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세상과는 유리된 사회에서 호의호식만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견뎌야 새겨 들어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대학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깊은 고뇌를 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성숙한 대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자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수 한 사람의 열정이 학생 몇 백명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교기념일에 해 봅니다.

제주대의 대단한 성과에 무한 자부심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낭만이라고 하면 대학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서도 장미의 계절 5월은 우리나라 많은 국립대학들이 개교기념을 축하하는 축제인 날이 펼쳐집니다. 이때가 대학생활에서는 가장 낭만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중간고사에서 쓴 잔을 마셔본 신입생들은 뭔가 정신을 차려 보려고 하는데 때 아닌 북방을 만난 듯하기도 할 것입니다.

개교 61주년,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제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이젠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가 국립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30년, 1982년 5개 단과대학 2개 대학원으로 출발한 국립제주대학교가 그 후 또 다시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환갑의 나이와 함께 12개 단과대학,

9개 대학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만 성장시키질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무수한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병선 총학생회장

개교 61주년을 맞이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글로벌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

대동제 통해 학생 모두가 꿈과 희망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낭만이라고 하면 대학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서도 장미의 계절 5월은 우리나라 많은 국립대학들이 개교기념을 축하하는 축제인 날이 펼쳐집니다. 이때가 대학생활에서는 가장 낭만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중간고사에서 쓴 잔을 마셔본 신입생들은 뭔가 정신을 차려 보려고 하는데 때 아닌 북방을 만난 듯하기도 할 것입니다.

개교 61주년,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제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이젠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학교가 국립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30년, 1982년 5개대학 2개 대학원으로 출발한 국립제주대학교가 그 후 또 다시 30년의 세월

을 거치면서 환갑의 나이와 함께 12개 단과대학, 9개 대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만 성장시키질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무수한 대학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큰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정 당시 거의 탈락위기에 놓였던 LINC 사업단은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사업단에 선정됐으며, 사이버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사업에서 우수

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교 61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하는 명품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꿈을 설계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는 대학생활을 꾸려가길 바랍니다.

개교기념 축제는 갑자기 만난 북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꿈을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축제는 낭만이고 또 다른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 가족여러분! 이번 개교기념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병선 총학생회장

글로컬 명품대학으로 도약하는 제주대에 거는 기대

밖에서 보는 제주대학교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학장

지난달 하순 주말에 안덕면 사계리 단산(斷山)엘 갔다. 고향마을의 아름다운 뒷산이라 틈틈이 찾아보는 오름이다. 뒤따라 젊은이들 여럿이 올라왔다. 대화를 하다 보니 제주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의대생인 그들은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제주도 출신이고, 그 외 모두가 타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고 했다. 아! 우리 국립제주대학교가 명실공히 제주도민의 대학이면서, 전국대학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워졌다.

1970년대 기자생활을 하면서 제주대학을 위시한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계 부서를 출입하며 취재보도를 하던 예전의 일이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었다. 특히 제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취급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뉴스 제목부터가 큼지막하게 '도민의 숙원, 종합대학교 승격'이었기에 여태까지 잊혀 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학장은 김계웅 교수에 이어 변시민 학장이 재임 중이었다. 두 분은 아쉽게도 단과대학 학장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제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기본 바탕을 다진 공로자로 기록에 남아

있을 터이다. 더욱이 변 학장은 통합캠퍼스 이설을 추진하여 제주대학의 '아라캠퍼스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드디어 제주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온도민의 숙원이자 대학구성원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종합대학' 승격, 실로 개교 30년만의 경사였다. 당시에는 언론사를 떠나, 도내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마치 나의 일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마음을 다해 축하를 보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인의 한사람으로 제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에 만분의 일이라도 기여하지 않았나하는 자부심이 일기도 하였다.

어느 날 갑작스레 제주대신문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주제는 '밖에서 보는 제주대학교'. 비록 교수를 지내기는 했지만, 퇴직한지 7년이나 되는 사람이 대학과 연관된 글을 써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도저히 자신이 없어 사양하였다. 더구나 한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처지로, 타(他)대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더욱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 자연인으로서 써달라는 요청에 그만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도민들과 외국인들은 상아탑 밖에서 제주대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변경관이 수려한 캠퍼스

오래전 서울대학교에서 하계행정학회 세미나가 열릴 때였다. 그 학교 행정대학원의 원로교수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주대

학교로 화제가 바뀌었다. “내 생전에 제주대학교에서 1년 동안만 교수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큰 소원이야.” 그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대학캠퍼스를 다른 어떤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학식이나 인품으로 보아 결코 과장(誇張)된 표현이 아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학업과 연구에 앞장서 광활한 대지(大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아늑한 분위기, 전방의 창망(滄茫)한 대해(大海)와 뒤로 장엄한 한라산이 감싸주는 경관 좋은 교정, 이 모두가 외국인인 보는 자랑스러운 제주대학교의 모습이다.

인재양성의 요람

제주도내 어디든 가보라. 제주대학 출신이 없는 곳이 있는가.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장(敎場)임을 입증하는 좋은 예(例)이다. 정치·경제·산업·금융·교육·건설·교통·법조·연구·의료·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국립대학 총장·3선 국회의원·도지사 등 학계와 정·관계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행정부서, 재계와 경영·금융부문, 언론계와 각종 기관 단체 등에서 요직을 두루 맡아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합격생을 간간히 내오던 사회계열이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 의대출신 의사와 간호사들의 활동도 괄목할 만하다. 농수산학부에서 새로운 이론과 혁신기술을 터득한 졸업생들은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농수축산업의 현장을 주도적으로 견인

(牽引)해 나가고 있다. 도내 지식인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정야독(晝耕夜讀)이 더더욱 아름다운 배움터

실제로 저녁에 제주대학교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무대가 바로 제주대학교이다. 밤의 대학 강의실과 도서관은 야간 학부생은 물론이고, 각종 특수·전문대학원과 평생교육원 수강생들로 열기가 가득하다. 제주도민들은 모두가 면학도(勉學徒)요, 만학생(晩學生)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정규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일반인들, 방송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학업을 시작한 편입생들, 보다 높은 안목과 식견을 쌓으려는 직장인과 주부들, 학문적 지식과 고급기예를 연마하여 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석사과정 학생 등등, 강의 동(棟)마다 흰히 밝혀진 조명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감동케 한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대학

제주대학교는 누가 뭐래도 국립대학이면서, 엄연한 제주도민의 대학이다. 태생부터가 그렇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대학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제주

대학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리탐구의 전당이여야 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연구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이 점에서 도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고 믿는다. 도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건설·산업·연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제주대학교가 관여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그만큼 관계기관·단체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이다.

밝은 미래 세계(世界)로 뻗어가는 명품의 산실

제주대학교의 미래는 밝다. 제반 학업여건과 연구 환경이 훌륭하고 인적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초급대학 4개학과로 조출하게 출범했던 개교당시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제주대학교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허향진 총장이 강조하듯이 ‘글로컬 시대의 뉴리더를 지향하면서, 세계의 인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머물며 토론하는 장(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일선과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우뚝 서는 일이다. 제주도민들은 여기에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제주대학교의 개교 61주년을 지성으로 경하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리탐구의 전당이여야 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연구중심체가 돼야 한다.

시대흐름 읽고 역발상 해야 대학혁신 가능

안에서 보는 제주대학교



김치완
철학과 교수

메멘토(Memento), 기억

로마시대 로마군사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술잔을 들고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고 말했다고 한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지금의 승리가 동료와 적의 죽음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여기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우리도 죽을 것임을 되새기라는 의미를 끌어낼 수도 있다. 동양사상에서 ‘여기 지금(hic et Nunc)’의 역사 관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까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여기 지금’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과거가 된다는 시간의 연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짧은 글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즘 말로 “때우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대”에 따라 언급해보고자 한다.

유기적인 체제와 조직의 정비

우리대학은 1951년 사설 대학교육기관인 ‘제주대

학원’을 거쳐 1952년 5월 27일 2년제 제주도립 초급대학으로 공식출범했다. 1955년에 도립제주대학, 1962년에는 국립제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교육대학과 통합을 이루면서 명실상부한 국립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2012년 4월 기준으로 3차 1국 1단 9과와 6총장직할기관을 둔 본부와 12개 대학 10개 학부(22개 전공), 52개 학과, 9개 대학원, 40개 지원시설, 37개 연구시설, 3개 부설학교, 2개 법인을 둔 큰 조직이 되었다.

이만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도민들과 기관, 학내구성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이니만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감사나 실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듯이, 이 방만한 체제와 조직을 유기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물론 국립대학은 학문기초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체제와 조직을 “경쟁력 제고”라는 프레임 속에 넣고 선분별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대학만의 특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와 조직을 정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십년을 내다 본 공간과 시설

제주향교 적선당 앞 건물에 3개의 강의실로 출발한

우리대학은 현재 48만549평(1,588,594㎡)에 이르는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기타시설까지 포함한 건물이 161개동에 연면적 9만4895평에 이르는데, 재학생 1인당 강의실확보 면적이 2.39㎡로 최소기준인 1.2㎡의 두 배, 실험실습실 확보 면적은 3.74㎡로 최소기준인 2.5㎡의 한 배 반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은 “캠퍼스 주변 환경이 매우 수려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인지 방문객들은 우리대학교의 캠퍼스가 넓고 쾌적하다는 점을 가장 큰 칭찬거리로 꼽는다.

하지만 중장기발전계획과 공간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설 배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쾌적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마저도 든다. 이제는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분산이 필요하다. 예컨대 아라캠퍼스만 두고 보더라도 정문과 후문의 교통량은 물론 학문의 성격과 시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과 시설 배치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U-캠퍼스나 그린캠퍼스 등이 캠퍼스 밖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정작 학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직원식당이나 도서관 시설이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

그동안 우리 대학은 도내 유일의 4년제 국립종합대

학으로서 도내 우수인재들의 산실이었다. 이 점은 현직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문교수님들의 숫자가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소와 도내 우수인재들의 이탈 증가라는 위기요인을 도의 우수학생들의 선발 등을 통한 지역적 한계 탈피라는 기회요인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학생선발 등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교과과정개편특별위원회와 기초교육원 등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노력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에 핵심역량영역을 신설하고, 취업전략분부를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서 빛을 발했다.

그런데 교육이란 현실적인 요구에 적절히 응답해야 할 시대적 사명도 띄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의 본래 목표, 곧 기본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만만큼 굳이 ‘선진화’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일 필요가 없다. 굳이 ‘선진화’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외장만 살차 바꾸어 신제품이라고 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

전략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면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본래 기능 속에서 취업이라는 성과지표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계산공구(戒愼恐懼)의 역발상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신독(愼獨: 홀로 삼강)을 설명하면서 “자기만 아는 일에 삼가기를 극진히 한다는 뜻이지, 자기만이 혼자 거처하는 곳에서 삼가는 것을 극진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안(內)이 문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은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러므로 일천(日淺)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진감을 맞이한 우리 대학의 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이순(耳順)을 넘겨 진감을 맞이한 우리 대학의 어른들께서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감히 고언(苦言)을 덧붙이자면,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일량은 접어두시고, 향후 십 년 동안 시류를 거스르는 역발상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예부터 그것은 드물다(古稀)”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축제의 마당을 벌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개교 61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 설

개교 61주년, 새로운 시작
-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대학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60년을 한 주기로 삼는다. 61주년은 바로 새로운 주기의 첫 돌인 셈이다. 앞 주기가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두 번째 주기는 세상을 돌아보는 주기여야 한다. 앞 주기가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는 시기였다면 두 번째 주기는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봉사하고 동행하는 시기여야 한다. 지역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낮추어 사업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불가의 말을 빌면 동사섭(同事攝)하는 임무를 대학이 깨닫는 시기여야 한다.

어떻게 지역밀착형 대학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는가. 첫째, 지역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화의 조류를 잘 읽어서 대응해야 한다. 개별문화들을 지배하고 흡수하는 위험이 세계화에 있지만, 한편으로 타자를 읽고 타자와 상호작용으로 부족한 자아를 보완하여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완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개방하면서 수출하는 전략을 누가 하는가. 바로 그 지역의 두뇌라 할 대학이 맡아야 할 책무다.

둘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특별하게 자치할 역량이 없는 이때, 제주도 행정을 도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대학 교수가 정치에 뛰어들어 고쳐줬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대학 교수가 합심해야 한다. 제주도정과 제주대 교수가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잘 실천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대학은 제주도로부터 무엇을 받는가. 제주도정 주변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주대 졸업생을 많이 취업시키는 성과를 얻으면 된다. 21세기 총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평생교육을 확대하여 제주도의 모든 주민이 교육받고 새롭고도 보람 있는 인생을 설계하도록 도와야 한다. 과거 대학은 젊은이를 위한 교육의 장에 불과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80~90 세에 이르렀으니, 그 변화에 맞추어 중장년층을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한 때다. 교양, 전문, 취미에 걸쳐 주민을 만나야 한다. 앞서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역의 '마을 만들기'에도 동참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이때 교수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복지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다. 공동체를 지키고 공감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지역 대학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뒤쳐져도 서둘러도 안 되고 선변(善變)해야 한다. 하나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나와 지역사회를 함께 중시하는 대학의 사명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외교원, 언어교육원으로 확대·개편을

우리는 '외국어교육원'을 '언어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 대학교의 외국어교육에 무슨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다.

총장이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다시피, 근래 들어 우리 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3개국 143개 대학, 23개 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 17개국 61개 대학과의 학생교류 협정 등을 맺음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가 탄탄히 구축되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 수는 600명을 넘어서면서 머지않아 1000명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 대학생 유지를 위해 국제교류본부 등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국어 교육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국제교류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학점화된 한국어 관련 과목만 국어국문학과에서 맡고 있다). 국제교류본부에서 한국어교육부를 두고 있지만, 관련학과의 전임교수들이 거의 배제된 가운데 강사들에게만 한국어교육을 맡기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사실, 국제교류본부에서 한국어교육을 맡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국제교류본부는 국제적인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다. 총장도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어교육원' 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한국어교육원·한국어문화교육원·한국어학당·한국어교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때, 우리도 그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난점이 많아서 한국어교육원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외국어교육원을 언어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외국어교육원의 기능에 한국어교육을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면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고, 교육의 전문성·체계성도 도모할 수 있다. 국제교류본부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개교 6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대학 발전을 위한 길인지를 숙고하는 가운데, 전향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개교 61주년 기념식 24일 열려

근속 및 공로 유공자 표창
우수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개교 제61주년 기념식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대학현장 낭독, 학사보고, 발전기금 수여, 감사패·공로패 수여, 표창패 수여, 기념사,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대학발전 유공인사 초청 리셉션이 캄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개교기념식 감사패·표창패 수상자 명단.

▲(주)한라산기금 외국어영역 우수학생 장학증서=정다에(중어중문학과 3), 임기홍(관광개발학과 2), 정익정(관광경영학과), 유나영(영어교육과 4), 김경만(초등영어교육전공 4), 황현정(수의학과 1), 김준규(수의학과 1), 홍광택(수의학과 4), 문혜연(수의예과 1), 심재엽(의학과 1), 오일중(의학과 1)

▲대학발전기금 유공인사 감사패=강태선(블랙야크 대표이사), 오찬익(일본 미빈 대표이사), 양용만(제주축산바이오 대표), 김도영(김종배 석좌교수 자녀), 가갑순(메트로페밀리 대표이사), 강병수(동양아엔피 대표이사), 김남식(정봉환경 대표), 김성강(싸이맥스 대표이사), 정병운(대풍이앤씨), 조운제(퓨리텍 대표이사), 현동수(동원설비), 홍창도(제

주피엠씨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학발전 유공인사 감사패=한상업(총동창회 부회장), 윤경필(총동창회 운영상임이사), 안민찬(기성회 회장), 이재은(기성회 부회장), 박주수(기성회 이사), 현왕수(제주장학재단 이사장), 고문석(난지축산시협장장)

▲개교 제60주년 기념사업 유공교원 공로패=정충덕(과학교육과 교수)

▲3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교수=강영봉(국어교육과), 김희열(독일학과), 고창훈(행정학과), 강덕수(경영학과), 이상봉(회계학과 교수), 황정봉(무역학과), 양방주(윤리교육과), 강민수(생명공학부), 소인섭(생물산업학부), 양성기(토목공학과), 송석준(수학과), 방은숙(수학과), 김정희(음악학부), 한삼인(법학과) △직원=김태준(학생복지과), 강수철(시설과), 이경봉(시설과), 김용언(생명자원과학대학), 모창남(사회과학대학), 이영숙(학사과), 양순량(사법대학)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교수=이경원(행정학과), 강기춘(경제학과), 김희철(무역학과), 고윤희(수학교육과), 류재청(체육학부), 이상준(컴퓨터공학과), 김세호(전기공학과), 김민찬(생명화학공학과), 현동걸(초등교육과), 정종태(수의학과), 김용환(미술학부) △직원=현영주(공과대학), 강병근(국제교류본부), 변수철(해양과학연구소), 양영우



개교 제61주년 기념식이 지난 24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허항진 총장이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를 시상하고 있다.

(시설과), 윤재호(홍보·출판센터), 박은숙(의학전문대학원), 박창근(시설과), 김근영(공학교육혁신센터), 정익권(취업전략본부), 김건보(교육대학), 김원균(해양과학대학), 고동호(생명자원과학대학)

▲산학협력 우수교수=현명택(기계공학전공 교수)

▲2012년 2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원 △교수=임동춘(중어중문학과), 김희정(언론홍보학과), 정수연(경제학과), 김종훈(영어교육과), 전용철(생물산업학부), 조은일(환경공학과), 장애란(의류학과), 임상빈(식품생명공학과), 김현정(식품생명공학과), 이주섭(초등교육과), 김재훈(수길(초등교육과), 김재훈(수길(초등교육과), 현미열(간호학과), 이창준(체육학부), 이윤석(법학과), 김진석(의학과), 김우정(의학과) △강사=손영석(일어일문학과), 김혜진(전산통계학과), 백유일(미술학과)

▲우수교사=고희숙(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홍죽희(사범대학부설중학교), 주교형(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우수직원 △명품CS리더=김중훈(시설과), 강원석(의학전문대학원), 문영숙(경상대학), 지효정(기획평가과 개교60주년 기념사업 유공)

▲사회봉사 우수학생=이영수(일어일문학과 4), 현우정(언론홍보학과 4), 양보원(경영학과 4), 정정훈(영어교육과 4), 송민아(식물자환경경전공 4), 김충환(환경공학과 4), 박현애(주거가족복지전공 4), 박지웅(통신공학과 4), 송승헌(초등사회교육전공), 문정모(수의학과 3), 김윤미(간호학과 4), 김지혜(한국화전공), 양진욱(환경공학과 4), 김미선(수학교육과 4)

박물관 개교기념 특별전 31일 개막

‘제주서화의 맥’ 주제로
‘영주심경도’ 대중에 최초 공개

제주대 박물관(관장 김동진)은 오는 31일부터 개교 61주년을 기념해 ‘제주 서화의 맥’을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제주도 문인들의 대표적인 글씨와 그림을 통해 제주인과 제주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간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제주 명소 10곳을 화폭에 담은 ‘영주심경도’를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3개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제주 서예에 영향을 준 조선시대 유학자, 제주도의 근대 서예가들의

작품들과 제주도 민화를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테마는 제주 서예 발전에 영향을 준 조선시대 유학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 묵사 김영수의 마애석각 탁본과 간찰 등을 전시해 당대 석학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두 번째 테마에는 연암 홍종시, 심재 김석익, 해주 원용식, 수암 강용범, 소암 현종화, 민봉 홍정표 등 근대 제주도 대표적인 서예 작품을 모았다. 세 번째 테마는 근대 제주도의 대표 민화인 문자도와 당대 서화가들의 그림이 함께 전시된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문의=제주대학교박물관(전화 754-2242) 강경태 기자

조릿대 사업단 (주)한라산소주와 업무협약

조릿대를 활용한 주류 개발
“특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조릿대RIS 사업단(단장 김세제)와 ㈜한라산소주(대표이사 현재용)은 1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조릿대를 활용한 주류 개발 및 연구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상호 협력을 위한 마케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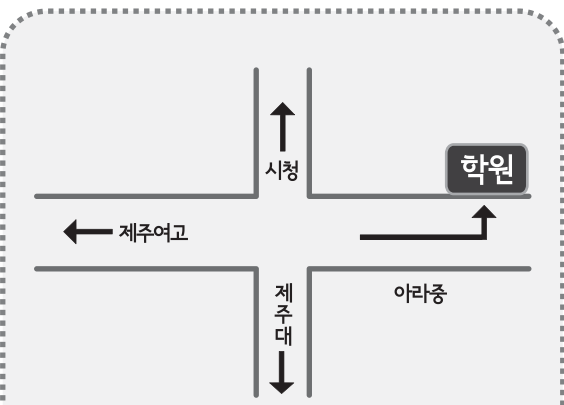
사업수행을 위한 연계활동 등에 협력기로 했다.

현재용(주)한라산소주 대표이사는 “이번 제주조릿대RIS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제주특산물인 조릿대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자연유산에서 자생하는 제주특산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편집국장 김명지
전화)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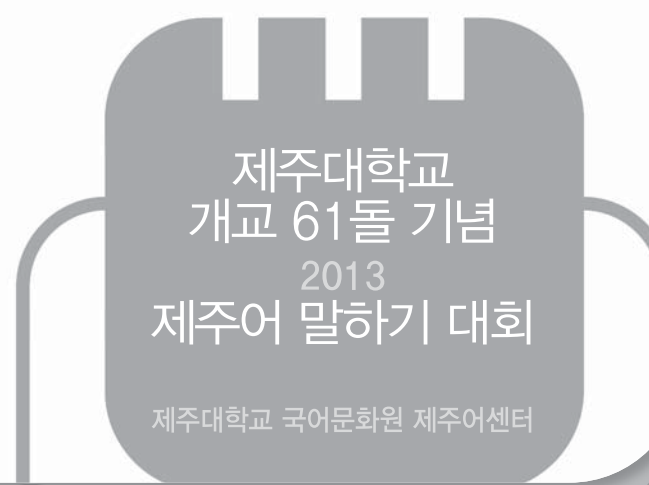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어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대학교는 개교 61돌을 기념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제주어의 전승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2013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엽니다. 제주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장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대회 일정 및 주제
 - 일시: 2013년 6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세미나실
 - 주제: 자유
- 참가 자격과 대회 방식
 - 참가 자격: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개인 또는 2인 1조
 - '2007~2012 제주어 말하기 대회' 대상·금상 입상자 제외
 - 방 식: 말하기(연극적 요소 배제)
 - 소요 시간: 5분 내외
- 시상 내역
 - 대학생부
 -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 학생부(초·중·고등학생)
 -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 △지도교사상: 제주대학교 총장상과 부상
- 참가 신청 접수
 - 일시: 2013년 5월 2일~5월 30일
 -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 ※참가 신청서는 제주대학교 누리집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서 작성하면 됨.(사진 포함)
 - 접수 방법: 우편, 전자 우편, 모사 전송, 누리집, 직접 방문
 - △주소: 우편 번호 690-7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 △누리집: http://malgeul.jejuu.ac.kr
 - △전자 우편: halla2712@jejuu.ac.kr
 - △모사 전송: 064-726-2440
 -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모사 전송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
 - 문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064) 754-2712, 2738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학내 현안에 대한 학교당국-학생회 간담회 개최

16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서 “생활관 식당 의무식 등 개선… 임용고시 지원 방안” 등 질의

허향진 총장과 학생자치기구 대표 간의 만남의 시간이 지난 16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허향진 총장을 비롯하여 김석중 학생처장, 김봉애 학생생활관장 등 보직교수들이 참석했다. 학생 대표로는 유병선 총학생회장, 박지혜 총여학생회장, 양승훈 총대의원회장, 정영훈 동아리연합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총학생회가 지난 3월 27일 총학생회 상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현안 13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학교당국의 응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회 측의 질의에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 개선, 제2도서관 방음시설 설치, 사범대 임용고시 지원방안 등 학내의 굵직한 현안 대해 학교당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각 단과대학별 불편사항을 수렴해 사회과학대학의 원어민 수업 학점 반영 문제, 사범대 임용고시의 실질적 지원 방안, 생명자원과학대학 신축건물 신축, 해양과학대학 학과방 신설 등의 새로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홍성훈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생활관 식당 의무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봉애 학생생활관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학기 중에 수



총장과 학생자치기구 대표간의 간담회가 16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요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제2도서관 방음문제에 대한 질의에 시설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휴게실을 밖으로 옮겨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향진 총장은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교육환경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LINC사업단 전국 ‘최우수’ 평가 비결은?

전국 51개 대학 중 1위… ‘최우수’ 평가로 47억 수혜 대학-기업 ‘맞춤 협력’ 주효… 특성화 분야 인재 키워 취업까지

190여개 가족회사 통한 산학협력이 경쟁력

제주대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교수)이 최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51개 대학 중 1위로 최상위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대 LINC사업단은 1000점 만점에 947.49점으로 최상위 평가를 받아 최대 지원금액인 47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됐다. 사업실적 평가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평가 항목은 정량평가(35%), 정성평가(60%), 학생·기업 만족도조사(5%)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LINC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창출과 확산으로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제주대 LINC사업단은 전국 51개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에서도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연계가 미약한 지역의 기업들을 하나로 모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허브 역할과 함께 캠퍼스 시설을 확충하며 인재들을 키우고, 지역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기술과 인적자원의 지원을 받아 성장 발판으로 삼아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LINC사업단은 이번 평가에서 제주형 중소기업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실 있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우수사례를 보면 제주대는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인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개발한 결과물을 경매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했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작품으로 설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융복합 MICE 연계전공, 청정헬스푸드 연계전공, 풍력서비스 트랙, 뷰티향장·물트랙 등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각 분야 산



제주대 LINC사업단이 전국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업현장에 투입되는 실무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00여명의 이 분야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대와 협약을 체결한 190여개 LINC사업단 가족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회사의 매출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이론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월 이상 관련 기업에 파견하는 인턴제도를 비롯해 취업캠프, 산업현장 견학, 창업성공스토리, 기업인사담당자 초청 특강 등 다양한 장·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백 단장은 “지역 산업체와 학생에 대한 취업매칭, 가족회사 지원에 따른 공동성공에 힘입어 이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내실있는 제주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LINC사업단은 새로운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위해 ‘제주자원 특화산업 밀착형 선도교육모델’,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신6차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젊은 창업가 친화형 선도창업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독창성과 수월성을 가진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사업의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학협력

SYSTEM :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확대 운영, 현장실습 지원센터·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 △산학협력 COMPONENT : 실습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지원, 특성화분야 융·복합 전공 운영 △산학협력 LINK : 기업의 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공용장비 지원센터 운영, 미취업 인턴십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대는 LINC사업을 통해 대학의 체제를 산학협력형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등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원인사·교수업적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창출을 목표로 재학생의 현장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캡스톤디자인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LINC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대거 취업시킬 복안이다. 1차 사업년도 취업률 54.7%에서 5차년도에 57%로 끌어 올린다. 또한 △가족회사 150개→220개 △창업강좌시수 9.1학점→15학점 △현장실습 이수비율 5.7%→10.0% △캡스톤 디자인 이수비율 5.5%→11% 등 LINC 사업 기간 동안 각종 실적을 대거 올릴 계획이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GTEP 7기 20일 모집 설명회 열려

무역 실무지식 교육 전국 24개 대학 참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 이용완)은 지난 20일 경상대학 2호관에서 GTEP 7기 모집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단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사업단 소개, 취지와 목적, 6기 요원들의 해외박람회 활동내역과 수출성과, 관련자격증 보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6기로 처음 시작된 제주대 GTE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전문가인재양성사업이다. 무역에 관심 있는 2,3학년 재학생을 선발해 1년 3개월 동안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 무역실무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6기 요원들은 오는 6-8월 두 달의 국내외 인턴십 과정이 남아있으며 9월에 최종적으로 GTEP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평화연구원과 업무협약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약속

제주대와 제주평화연구원(원장 문태영)은 22일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상호 협력 △학술·연구 정보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 협약에 규정된 협력분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언론미디어센터, ‘신문방송사’로 기구 개편

15일 전부개정 공포

언론미디어센터(주관 김동운)가 지난 15일자로 신문방송사로 기구 개편됐다. 이는 센터의 명칭 혼선을 차단하고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9일 평의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5일 공포됐다. 이번 기구 개편에 따라 언론미디어센터는 순수 대학언론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문방송사로 변경됐다. 최근 급속히 변하고 있는 대학 주요 현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대학 언론 업무의 전문성과 대학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문방송사는 제주대신문과 영자

신문의 발행, 교육방송 편성 및 송출, 인터넷미디어 운영 등의 학내 언론 기능과 백록문학상, 백록학술상, 영어말하기대회, 제주대 영상제 등의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사는 제주대신문 편집국, 영자신문 편집국, 교육방송 편성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16일에는 종전 언론출판센터에서 출판부가 홍보협력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언론미디어센터로 변경됐었다.

본사 사령

강수빈(언론홍보학과 1) 수습기자에 임명함 5월 27일자

2013년도 예비군훈련 내달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013년도 예비군훈련이 다음달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된다. 직장예비군연대에 따르면 제92해병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된다. 단과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24일=경상대학A △25일=경상대학B·예술디자인대학 △26일=사범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 △27일=자연과학대학·해양과학대학(해양산업경찰학과) △28일=해양과학대학 ▲7월 △1일=사회과학대학·법학부·교육대학·교직원 △2일=공과대학A △3일=공과대학B △4일=인문대학·간호대학·수의과대학 △5일=대학원·의과대학. 문의=예비군연대(전화 754-2288-9)

제주도의 심장 제주일보
도민과 함께 달려온 68년 도민과 함께 새 68년을 편다
제주일보·방송



대한민국 광복 68년 · 제주일보 창간 68년

1945년 조국의 광복과 함께 창간된 제주일보는 전국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된 전통지로, 전국 지방사 중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창간 68년의 연륜으로 신문·방송겸영 뉴미디어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를 주도하고 제주의 백년비전을 올곧게 제시하는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새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림리 2599-2번지 대표전화 064)740-6114, FAX 064)742-2004 http://www.jejuilbo.com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6호 대표전화 02)784-3461, FAX 02)788-2761

취업을 Job아라

제주이전기업 탐방 <10> - (주)제주반도체(JSC)

제주에서 최고 반도체기업을 꿈꾼다

'EMLSI' 에서 최근에 회사이름 변경해 재출범

2005년부터 제주대에 매년 2천만원씩 장학금 지원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 제주에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주)제주반도체이다.

(주)제주반도체는 지난 3월 27일 (주)E-MLSI의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설계·제조해 휴대폰 제조업체나 펌프 등 통신집적 제조업체, Flash 메모리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전문 메모리반도체 설계전문회사다.

회사는 2000년 4월 4일 설립됐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0.25um(마이크로미터) 4M(메가) SRAM(램의 일종) 품질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63nm(나노미터) 64M SRAM을 개발하고 있다. 크기는 약 20배 가량 줄어들었고 램 용량은 16배 증가했다. (주)제주반도체는 미주법인을 설립하고 램 스웨이의 자회사에 편입되기도 했다.

(주)제주반도체는 생산설비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고 설계된 제품을 외주해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위탁생산은 대부분 대만에서 하고 있다.

(주)제주반도체는 2005년 1월 제주로 내려왔다. 그 이유로는 대만과의 접근성이 서울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업무 특성상 대만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에서 대만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제주에서 대만까지는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됐다. 이와 함께 넓은 부지와 재정 지원도 제

주로 이전하는데 한 몫 했다.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의 회사로 바뀌었다.

회사는 개발부서, 영업마케팅부서, 지원부서로 나뉘져 있다. 개발부서는 설계팀, LAYOUT팀, PA(공정 관리), QA(품질 보증)팀, BACK END(생산 테스트) 팀이 있다. 영업마케팅부서는 마케팅팀, 영업팀, 영업관리팀, 생산관리팀이 있다. 지원부서는 인사총무팀과 재무회계팀으로 나뉜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SRAM과 셀룰러램(CRAM)이다. 이 두개는 휴대전화용 플래시 메모리 칩에 결합돼 복합집 형태로 사용되는 모바일 전용 메모리 반도체다. 이 제품들을 노키아, 스펙션, ST 마이크로, 뉴모닉스, 마이크론, 스프레드트럼, 미디어텍, 실버스크린네트웍스 등에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핀란드, 미국, 이탈리아, 중국, 대만, 일본, 독일 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주)제주반도체는 대형 모바일 세트업체,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및 칩셋업체를 고객기반으로 두고 있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회사 매출액은 2012년 말 기준 28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538억에 이르고 있다. 2005년 2월 1일 코스닥에 상장됐다. 현재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제주반도체는 제주대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협력하고 있다. 현재 공과대학의 공학교육혁신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를 통해



(주)제주반도체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설계·제조해 납품하는 전문 메모리반도체 설계전문회사다. 제주대학교 출신 직원들이 모여 시진 촬영에 임했다.

매년 2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기별 강의 지원, 하계 현장실습 및 멘토링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관련 학과 전공자들은 실습 참여도 가능하다.

앞으로 (주)제주반도체는 특정 반도체 분야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이 회사는 제주대 출신이 많이 분포해 있다. 제주도로 이전에 오면서 제주에 기반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이유다. 이름을 (주)제주반도체를 바꾼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제주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같이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제주반도체는 채용방법은 공채를 통해서만 인재를 모집한다. 채용전형은 서류-면접-채용검진-최종합격 순이다.

이 회사의 인재상은 직업적 윤리인, 진취

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인,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맨,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인, 겸손하고 주인의식을 갖춘 친화적인 인재다. 또 신입사원은 직무적합성, 적응력, 성장가능성을 보고 경력사원은 채용직무에 대한 경력사항을 주로 보고 있다.

회사 복지는 경조사비 지원, 미취학 자녀 지원, 리플레이스(5년 이상 일하면 한 달 휴가), 법인 휴대폰, 여직원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다.

(주)제주반도체는 입사 후 3개월 간 입문 교육 및 부서 내 OJT(on the job trade - 상 진행을 통해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습 기간 종료 후에는 직급별 필수교육을 수강하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신청을 통해 수강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뿜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동현 기자

능동적 글로벌인재 최우선 채용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성 길러야

인터뷰 제주반도체 김기홍 과장



▶신입 채용시 출신 학과를 보는가.

“개발팀은 대부분 공과대학 출신으로 구성하고 있다. 반도체라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을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감이 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무관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은 필요하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요즘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매우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 중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 학생들은 대개 꿈만 높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대학을 취업을 위한 장소로만 여기는 학생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정성을 이유로 공무원,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학생도 많은 것 같다. 물론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목적의 명확적 다양성이나 금전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 갑갑하다.

더불어 수동적인 학생도 너무 많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외국 사람과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1일까지 모두 11번의 강좌와 발표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져야

창의적인 리더의 뇌

정재승 / 카이스트 교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시멜로 챌린지(Marshmallow Challenge)'는 네 명이 팀을 만들어 18분 동안 스파게티면 스푼 가닥과 테이프, 실을 이용해서 탑을 쌓고, 가장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았을 때 높은 탑을 쌓으면 세는 대로 탑을 쌓는다. 대부분의 팀이 무너졌다. 뜻밖에 유치원생의 성과가 좋았다. 유치원생들은 처음부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일단 탑을 쌓는다. 5분 만에 작은 탑이 완성된다. 그 탑에 가지를 뺀고 안테나를 세우며 보통 3개에서 6개까지 탑을 만든다.

마시멜로 챌린지 게임의 교훈

먼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은 테이블에 앉으면 제일 먼저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는다. 5분 정도 계획을 세운다. 끝날 때까지 계획을 세운 대로 탑을 쌓는다. 대부분의 팀이 무너졌다. 뜻밖에 유치원생의 성과가 좋았다. 유치원생들은 처음부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일단 탑을 쌓는다. 5분 만에 작은 탑이 완성된다. 그 탑에 가지를 뺀고 안테나를 세우며 보통 3개에서 6개까지 탑을 만든다.

어른들과 다른 점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며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앞선 실험에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게임에서 1등을 한 팀에게 1000달러 정도의 상금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사람들을 달리해 실험했는데 탑이 올라가 지다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정신 차리면 결과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처음 해보는 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은 보상을 내걸수록 오히려 결과가 나빠졌다.

사회에 나가면 어떤 조직이든 연봉제라는 환경에 놓인다. 사람마다 등급을 나눠 평가하고 기준에 따라 연봉이 매겨진다. 가장 좋

은 등급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매년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의적인 리더의 뇌는 연관 짓기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서로 연결된다. 평소엔 상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고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데서 창의성이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창의적인 것이지만 그걸 배우는 순간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다. '창의성'을 자극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남들과 다른 것을 넣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입학까지 모든 학생들의 머릿속에 정해진 교과서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선행학습도 한다. 늘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지?', '남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따라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이디어를 보는 순간 알아채는 건 쉽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먼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알고 나면 변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창의적인 리더'의 뇌는 다른 분야를 놓고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한다.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길을 잃자 지도를 얻었다.

몇 년 전 국제학회에 초청받아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올랐다. 학회 장소는 터키 서부의 테키르다라는 작은 도시이다.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그곳으로 향했다. 오후 5시 테키르다에 거의 도착할 무렵, 내가 학회 장소에 대해 아는 정보라고는 테키르다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도시의 거리를 헤매다가 문득 내가 이 도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 도시의 지도가 머릿속에 새겨지고, 학회장소를 찾아 헤매던 그 순간에도 내 뇌는 근사한 호텔과 멋진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며

그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산책로, 예쁜 바닷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둔 것이다. 우리는 지도 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도를 그리는 시간'을 갖는 것임을 깨달았다.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다. 지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4년 내내 매달리지만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지도를 주지 않는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제 발로 걸어 다니며 깨우쳐야 한다. 젊은 시절엔 많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지도를 기웃대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만든 지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분야에서 오래 일해도 전문가는 될 수 없다. '실패하지 말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공하면 방법을 바꾸고 실패했다면 한 번 더 시도해야 한다.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하지 않는 것이다.

개그에서 배운 인생

임혁필 / 개그맨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그콘서트 때 '세바스찬' 코너를 1년 반 동안 했다. 권위 있는 귀족이라고 하자 방송 출연 4개월 만에 아파트와 차를 샀다. 어디에서나 귀족처럼 대접받았다. 그런데 매일 '나가 있오라'고 하니 말처럼 방송에서 나가 있게 됐다.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때 방위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었다. 끝내 부모님 몰래 해병대에 지원했다. 옆 부대에서 병사 한명이 자살을 했다. 우리 중대장이 병사들을 모아 '해병대는 싸우는 곳도 전쟁을 준비하는 곳도 아니다. '참고 기다리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 때 들은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열매 맺기는 끈기와 기다림의 산물
전역후 학교로 돌아왔다. 지방대학 미술 전공이었다. 전국 대회에서 상 한 번 타기가 어려웠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다. 유별나게 웃긴 후배가 있었다. 주위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벽장 안에 몇 시간 숨어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개그맨 시험을 같이 보기 위해 그 후배를 꼬드겼다. 마침 그 후배 역시 개그맨이 꿈이었다. 그는 요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맨 박성호다. 개그맨 시험은 삼수가 기본이지만, 단번에 붙었다. 합격 전화를 받고나서 '외제차, 아파트, 예쁜 여자친구'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현실은 긴 무명 생활이었다. 개그맨이 됐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이대로 개그맨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박준형과 후배 몇 명에서 소극장으로 갔다. 50석쯤 되는 소극장에서 열심히 공연했다. 점점 마니아층이 늘면서 입소문이 나자 누군가 '개그하고 싶다'며 우리를 찾아왔다. 워낙 어려운 생활을 하던 터라 돌려보냈다. 매일 전단지 돌리고, 무대를 설치하며 고생하지만 월급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곧 그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합류했다. 바로 정형돈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소극장에서의 개그 경험이 바로 실천연습이 됐다. 여럿 재능 있는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진짜' 재미있는 개그가 나왔다. 청년백서, 땅그지, 갈갈이 삼형제, 도래미 트리 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개그콘서트 코너들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TV를 통해 얼굴을 알리게 됐다. 소극장이 유명해지자 고등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 찾아왔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돌려보냈다. 다음날 그 남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자식을 혼냈을 텐데 '우리 효종이는 개그를 해야 한다고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애정남'으로 이름을 알린 최효종이다.

개그맨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준비해서 이뤄진다. 화려함보다는 힘들고 우울하고 고생하는 곳이 개그계이다. 개그콘서트 1기, 2기만 하더라도 참여하는 개그맨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코너는 소극장에서 이미 검증받았기에 재미가 있었다. 몇 년간 다듬어서 나온 코너여서 시청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하나 둘 씩 TV에 나오기 시작해 10개 코너에서 5개를 우리 소극장 출신 개그맨이 연기할 정도였다.

한국의 코미디프로 대명사는 '개그콘서트'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시청한다. 개그는 경쟁이다. 선후배가 따로 없다.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 갈린다. PD들 역시 개그맨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방송에 출연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친다.

미술·마임 집묵한 편타지쇼 개척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마라토너와 비슷하다. 끈기와 인내,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하다. 한방을 노리고 100m 달리기를 하듯 뛰어들면 살아남지 못한다. 최근 강연 요청이 많다. 강연을 위해 자기계발서 50권 정도를 읽었다. 책에 나온 좋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토너와

비슷하다. 끈기와 인내,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하다.

한방을 노려 100m 달리기 하듯

뛰어들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꿈을 생생하게 꾸어라', '새벽 4시에 일어나라', '독서를 매일해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라',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일해라', '꾸준한 운동을 해라' 등. 하지만 실천하려는 끈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한 일주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보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헬스클럽은 1월에 매출이 제일 높다가 서서히 줄어든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편타지쇼'라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편타지쇼는 마술쇼, 버벌쇼, 그림자쇼, 마임쇼, 광대쇼, 샌드에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된 유니버스 형식으로 은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다. 기획, 연출, 제작, 주인공도 혼자서 하고 있다. 2년 동안 돈을 투자했다. 포스터 들고 거리 홍보도 다녔다. 험난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

제주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 열어... 산업 인프라 최적지

학술기고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



박 경 린
전산통계학과 교수

2009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세계를 바꿀 7대 신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그 7개 기술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태양광에너지, 탄소포집저장 기술, 바이오에너지, 첨단자동차, 친환경석탄기술이었다. 더 나아가서 G8 정상들은 각 기술 분야를 선도할 국가들을 선정하였는데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되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그리드(Grid: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분야로 향후 이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발달한 정보기술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지정의 주된 이유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선도할 기회와 함께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

스마트그리드 선도를 위해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작성, 발표하였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개방형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장예측 및 자동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파워그리드, 두 번째는 지능형 계량 인프라와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소비자,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를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 운송, 네 번째는 풍력, 태양광 등의 지능형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반영한 전기요금제도와 전력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능형 전력 서비스분야이다.

올해 5월에 종료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는 약 24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위의 5개 분야에 168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단지 구축사업 종료 후에 후속과제로 전국에 7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실증사업에 이어 거점도시에도 선정이 되어서 실증사업에

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들을 사업화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제주도의 입장에서 결국 스마트그리드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전기자동차 활용사업 육성이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인프라 제주가 율동

첫째, 제주도는 현재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들과 비교해 보면 2013년 전기차 보급분을 포함해서 올해 연말이 되면 서울특별시인 경우 505대, 부산광역시 25대, 대구광역시 5대, 광주광역시 2대에 비해서 제주의 경우 529대의 전기차가 달리게 된다. 경기도 75대, 강원도 18대, 전북 11대, 전남 143대와 비교해 봐도 제주도의 우위가 확인하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에도 전남 158기, 전북 11기, 경남 130기, 경북 79기, 경기도 62기에 비해서 제주도의 경우는 576기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는 밀폐된 섬으로 그 면적이 타 지자체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충전 인프라는 더욱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렌트카, 전기차 셰어링, 전기차 택시 등 전기차를 활용한 사업에서 제주도는 시범사업의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전기차 성능 검증에 최적지

둘째, 제주도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실증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기차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성공하려면 전기자동차의 성능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검증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전기자동차의 성능 스펙은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자동차의 스펙에 의하면 대부분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150Km 내외로 제시되어 있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 성능은 그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의 도로의 오르막/내리막 경사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고, 온도, 습도, 고도 등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도로에서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을 가로 지르는 5·16도로는 급경사 급커브가 심한 산악형 도로이다. 또한 1100도로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도로의 고도가 해발 1100미터에서 온도, 습도의 변화가 심하고 겨울철에는 결빙 등의 악조건이 존재하는 도로이다. 제주공항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 비전, 단계별 목표, 5대 추진분야 등이 제시돼 있다.

과 중문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평화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제주의 해안도로들은 전기차와 상극인 염분 등에 노출된 바닷가 도로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적 조건에서 실증된 전기차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다른 지역,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에 나가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풍력발전 통해 전기차 충전 가능

셋째, 제주도는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 전기차는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전력계통의 입장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전력 수요가 생겨나게 된다. 현재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전기차에 필요한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방사능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발전소 위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이라는 시대의 트렌드에 어긋나는 방향이다. 현재 제주도는 광역경제권전도산업 등을 통하여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전기차 활용 산업 육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전기차 제도개선에 특별자치도 장점 충분

넷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법 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전기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 제도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현재대로 관광산업의 경우,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많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관광에 전기차 활용

다섯째, 제주에는 연간 천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전기차 서비스 역시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가 제대로 될 때 그 효과가 빠른 시간 내에

극대화 될 수 있다. 천만명의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비즈니스의 홍보요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2012년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선포

여섯째, 제주도의 정책의지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의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섬 구현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는 ‘친환경’ 이미지로, 굴뚝산업을 비롯한 타 제조업의 육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활용 사업은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녹색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 11월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전기차 시범도시로 선포하였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그리드과를 신설하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산업에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이미 형성된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단계인 만큼 지자체의 추진 의지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가솔린 비행기가 처음 하늘을 날 때 비행거리는 36미터였고 비행시간은 12초였다. 상업화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이었지만,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한 투자는 계속되었고, 오늘날 미국의 항공 우주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의 힘으로 달리는 전기차. 바람의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친환경 섬 제주를 꿈꾸며 오늘도 나는 달린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일하기 좋은 기업탐방 SK핀크스

‘국내 최고 명품 휴향형 리조트’ 추구

지난 22일 (주)SK핀크스를 취재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이 행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탐방 견학프로그램’으로 취업전략본부 주최로 진행됐다.

(주)SK핀크스는 제주 핀크스 리조트가 2010년 9월 SK네트웍스의 자회사로 바뀌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제주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동 현장실습, 산학인턴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SK핀크스를 찾아가는 버스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친구의 소개로 같이 참여했다. 버스는 약 40분 후에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주)SK핀크스에 도착했다.

버스에 내려 (주)SK핀크스 사옥 안에서 회사 소개를 들었다. 국내 최고 명품 휴향형 리조트를 목표로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점과 ‘자연에 융화하는 회사’인 점을 강조했다.

조용선 (주)SK핀크스 대표는 “핀크스의 뜻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다는 의미로 생각나는 대로 만들자는 뜻”이라며 “요즘 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데 취업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회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사 소개를 들은 후 사옥을 구경했다. 사옥 내에는 그림이 많이 전시돼 있었다. 그림들은 대부분 제주 출신 화가 또는 이왕종 화가처럼 제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화가의 그림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림을 보면 (주)SK핀크스가 제주다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엿보였다.

사옥을 구경한 뒤에는 라운딩 홀로 이동했다. 라운딩 홀은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골프를 연습한 후에는 ‘포도 호텔’로 이동했다. ‘포도 호텔’은 제주 으뜸과 초가집을

모태로 만들었다. 그 모양이 포도를 닮았다 해서 ‘포도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포도 호텔’은 제주와 서양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건물 창가 주변에는 현무암 등 제주와 관련돼 있는 것들로 꾸며져 있었다. 건물 내부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과 많이 닮아 있다. 제주와 서양의 조화는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우러졌다.

채진혁 인사총무파트장은 “건물 내·외부는 제주 핀크스 리조트일 때와 거의 흡사하다”며 “포도 호텔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포도 호텔’에서 나와 ‘비오토피아’로 이동했다. 비오토피아는 바이오와 유토피아를 결합한 말로 친자연적인 곳의 이상향을 찾는다는 뜻이다. ‘비오토피아’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최근 분양을 성황리에 맞췄는데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의 큰 손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 내국인으로 채워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SK핀크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속에 융화되는 듯 했다. 골프장이나 사옥, 호텔 등도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또한 제주다움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엿보였다.

임재훈(관광경영학과 3)씨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했다”며 “프로그램 자체의 의도는 좋았지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이같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지난 22일 SK핀크스를 방문한 학생들이 프로 골퍼의 지도를 받으며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아!

1)		2)			4)	
		3)				
					5)	
6)	7)			8)		
			9)			

소속·직위(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제주대신문

가 로 열 쇠

- 1) 장미가 짙 때는 집안에 곰팡이가 잘 핀다. ‘곰팡이’를 뜻하는 제주어는 ‘○○○’다. 달리 ‘곰팡이’라고도 한다.
- 3) ‘뜨거웠던 것이 서늘하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거 ○○ 현 딱어 저구과?”처럼 사용된다.
- 4) 농업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다. 농신인 이 신에 대한 의례를 제주에서는 ‘○○놀이’라고 한다.
- 5) 표준어 ‘뭍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드논물’이라고도 한다.
- 6) ‘국색이나 빨간 따위의 날개’를 의미하는 어휘다. 표준어 ‘알’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빨알’을 ‘줄○○’, ‘뱀알’을 ‘뱀○○’처럼 사용한다.
- 8) 표준어 ‘뽕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만쑤다’라고 한다. 제주에서 ‘쑤터럭이 ○면 해도 날이 ○면 한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 9) 표준어 ‘형님’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부른다.

세 로 열 쇠

- 1) ‘휴딩어를 깨뜨리거나 썩 부린 뒤 휴을 덮는 데에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곰방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2) ‘국색이나 과일, 나물 따위를 거둬 매 흘렸거나 빠뜨린 낱알이나 과알, 나물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흘린 것을 줌을 ‘○○ 쑤다’라고 한다. 표준어 ‘익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4) ‘여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뱀들이 잘 되지 않고 더듬거린다’는 의미의 어휘다. 표준어 ‘뿔더듬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7) ‘외지다’ 또는 ‘큰소리치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주변에서 큰소리거나 뻔, “저디 ○○는 거 누궤우과?”(저기 큰소리치는 거 누굽니까?)처럼 물어보면 된다.
- 8) ‘여자 종을 매접하여 부르거나 여자 종들이 서로 모여 부르던 말’이다.
- 9) ‘열출봉’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에서 애 뜨는 모습을 ‘○○’이 라고 해서 애게 이한우 선생은 열주심경의 제1경으로 꼽았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2013년 5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2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씩을 드립니다. 이번호 당첨자는 6월 5일자(수) 895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제주어 낱말맞추기 892호당첨자

892호 낱말맞추기 정답자는 없어 경품 당첨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892호 정답>

1) 두	갓			8) 줄	9) 갱(갱)	이
쿨		3) 중				이
4) 방	둥	이		10) 쑤	죽	
애(애)			7) 영	감		
				등		
6) 부	루		9) 들	음	박	10) 질
애(애)						매

출제: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아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안전행정부 견습직원 준비반 회원 모집

- ▶모집대상: 3~4학년 재학생 (2015년 2월까지 졸업 가능자)
- ▶신청자격: 제한 없음
- ▶신청기간: 5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스터디그룹 운영, 공식적격성평가 동영상 강좌, 모의고사, 특강 운영
- ▶문의: 취업전략본부 (754-2307)

2. IBM 글로벌 리더십 멘토링

- ▶취지 : Global IBM 임원 4명, 한국 IBM 임원 2명이 멘토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

- ▶운영일시: 6월 1일 오전 10시

- ▶운영장소: 교양강의동 4231, 4232호

- ▶참여대상: 3~4학년 재학생 30명 이내

- ▶신청방법: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 ▶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 ▶문의: 기초교육원 (754-2036)

3. 해병대병영체험캠프

- ▶운영일시: 7월 18일~19일

- ▶참여대상: 1~4학년 여학생

- ▶신청기간: 6월 중 공고

- ▶신청방법: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 ▶문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54-4452)



무한 가능성과 실천의 뜻을 달자

최근 제주지역 모 기관장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그는 제주 출신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 사람들이 말하는 ‘육지 것들’ 이 화제로 떠올랐다. 그 기관장은 “제주 사람들이 타시도 출신들을 왜 ‘육지 것들’ 이라며 비하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배타성 비슷한 감정일 것이다.

‘육지 것들’은 사실 제주 사람들이 타시도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자 비난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육지 출신들에게 박해받았다는 사실, 4·3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에게 겪었던 끔찍한 만행과 학살, 출륙금지령으로 대표되는 제주섬에 대한 억압 등이 망라돼 우리 제주사람들의 뇌리에 ‘육지 것들’이 각인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당연한 단어인지도 모른다.



그 억압과 만행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 사람들이 그 정도 표현이야 못하겠는가.

문제는 ‘언제까지나’이다. 언제까지 ‘육지 것들’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대항해보기도 전에 주눅부터 들어야 하는가 말이다. 이는 중앙과 변방의 문제로 치환된다. 중앙의 구심력은 변방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다른 지방의 모든 것을 가져가버리듯이 돈이나 자원, 우수한 인재는 서울로, 서울로 몰리고 있다. 서울은 지방의 생활을 빨아 생존하는 거대한 집적체다. 그러면서도 뒤치닥꺼리는 지방에 떠넘긴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경기도로 간다. 서울은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지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무한정 가져다 쓰고 있다.

서울과 제주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과 제주대학교를 비교하면 더 그렇다.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가기위해 지금 제주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제주대학교에 남겨졌다고 서울을 시샘하고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서울이 중심이 아니라,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청정자연을 내세워 서울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 제주가 원의 중심이 돼 커다란 구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실제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징후가 있다. 올해 제주도의 순 유입인구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살겠다고, 제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인재들이 제주를 탐색하고 있다. 이들을 받아들이려 제주도가 한반도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에 이론과 실천의 뜻을 달아주자. 그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다음아닌 제주대학교 학생, 바로 당신들이다.

강홍균 (경향신문) 기자

‘지방대’의 지역성에 주목한다

제주대 정문을 올라다봤더니 큼지막한 ‘경측’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 전국 51개 대학 중 최우수 선정’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얼마전 교육부 평가에서 제주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산학협력력을 가장 잘한 곳으로 뽑혔다. 이를 두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어느 신문은 “지난해 초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꼴찌로 간신히 합격했던 제주대가 불과 1년 만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제주대의 산학협력 모델에 주목한 사실을 썼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에 무게를 실은 이 사업에서 기업 환경의 영세성을 딛고 맞춤형 아이디어로 지방대의 편견을 깨뜨렸다는 내



용이었다.

제주도교육청 집계를 보니 특성화고를 제외한 2012학년도 도내 고교 대학 진학률이 89.6%에 이른다. 고교 졸업후 대학으로 향하는 길 당연히 여기고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4곳이 있는 지역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일까. 국립대인 제주대 입학은 지역에서 화제가 안된다. 소신보다는 ‘인서울’을 못이룬 청춘들의 차선책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

제주대가 몇해 전부터 ‘프라이드 업 캠페인’을 펼쳐온 것도 그런 시각을 해소하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올해 입학식에서도 신입생들에게 ‘제주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달라. 지방대에 다닌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당당히 정진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제주대는 제주에 있는 지방대가 맞지만 그것이 ‘방어기제’가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

이다. 60년 넘게, 오랜 기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자리해왔고 지금은 ‘거점 국립대’로 그 위상을 높여가며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제주대’라는 브랜드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여건이 불리해질 때면 “지방대이니까...”란 이유를 대는 대학 구성원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지역성’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한 긍정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근래 산학협력 성과도 지역성에 눈길을 둔 결과다.

인문학, 자연과학을 아우른 ‘제주학’연구를 외면한다면 제주대가 국내 우수 고등교육기관에 건질 특장을 가질 수 있을까. ‘제주성’이라는 지역적 배경에서 탄생한 제주대는 제주의 인문·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학문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지금, 제주대에 몸담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에 따른 연구 여건을 뒷받침하고 확보하는 일이다.

전선희(한라일보) 기자

차별성 있는 ‘스타학과’ 만들어야

제주대학교가 내 모교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내 가족 여섯과 주변 지인들이 제주대 출신이고, 나는 지난 10년 가운데 6년 동안 제주대 출입기자였기 때문이다.

제주대 병원이 신축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고, 박세필 교수의 체세포 복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변화를 지켜봤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내용과 제주교대 통합 과정의 진통도 중심에서 함께했다. 그렇게 성장통을 거치면서 제주대는 개교 61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됐다.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이면서 지역 거점대학이 됐고, 국내 20위권의 세계적인 명품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만들어졌다.



얼마전 제주대 입학설명회가 열리는 고등학교에 갔었다. 수험생들에게 제주대에 와서 한다면 강조하는 건 전국에서 수업료가 가장 싼 대학이고, 재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사립대 등록금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시대라 당장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 취업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고, 좋은 학과 역시 취업 기회가 많은 학과가 돼 버렸다. 제주대는 어떤가?

지난해 제주대 순수 취업률은 47.7%였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전국 대학 평균 60%와도 큰 격차가 있다. 더 나아가 제주 청년 실업률이 6%로 전국 평균 2.2%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는 제주대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셈이다.

총장 선거때마다 핵심 공약은 취업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허황진 총장 역시 취업을 70%를 목표로 제시했었다.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해외 연수를 시키면서 예열 과정이 진행중이고, 서서히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란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학교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돼 있다는 것이다. 몇해전부터 제주대는 신입생 모집 정원을 가까스로 채워가고 있다. 고등학생 숫자는 앞으로 계속 줄게 되고 수험생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이 없다면 얼마없어 모

강석창 (JIBS) 기자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 실현시급

대학은 학생에게 단순히 수업만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에서는 취업전략본부의 취업캠프나 HRA, 기초교육원, 문화광장, 대학생아카데미,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단, 커리어개발센터 등 다양한 교육, 취업,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양뿐만 아니라 질도 훌륭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몇몇 학생들의 자조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제주대학교는 상당히 괜찮은 대학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심이 될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학생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플랫폼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 아직 취업의 심각성을 모른다가거나, 덜 ‘깨어’있거나, 게으르거나 노는 데만 관심 있거나, 미래에 대해 준비가 없거나,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냉소가 쏟아진다.



대학은 학생에게 단순히 수업만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에서는 취업전략본부의 취업캠프나 HRA, 기초교육원, 문화광장, 대학생아카데미,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단, 커리어개발센터 등 다양한 교육, 취업,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양뿐만 아니라 질도 훌륭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몇몇 학생들의 자조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제주대학교는 상당히 괜찮은 대학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심이 될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학생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플랫폼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 아직 취업의 심각성을 모른다가거나, 덜 ‘깨어’있거나, 게으르거나 노는 데만 관심 있거나, 미래에 대해 준비가 없거나,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냉소가 쏟아진다.

관심과 참여 부족을 학생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학생들과 감성코드 맞추려는 교수들과 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기성세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습득된 관성들이 급세 바뀔 리 만무하다.

하나 더 있다. 실제로 고급 전문직이고 비교적 엘리트들인 대학 측 구성원들의 시선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정 세대나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층적인 문제가 가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대학과 오늘날의 대학이라는 상징과 구성원의 성질은 크게 변했다. 앞서 제시한 호풍이나 불평이 더 이상 먹혀들기 만무한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이 지점에서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무기력함을 조소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보는 게 나을 듯싶다. 학생들과 감성코드를 맞추려는 교수와 직원들의 노력이 우선시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을 탓하기 전에 세련된 설득의 방법이 필요한 때다.

문준영(제주소리) 기자

상아탑의 근본 잊어선 안돼

제주향교 명륜당의 제주대학원을 모체로 출범한 제주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았다. 사람의 일생에 비견될 세월 동안 제주대는 12개 단과대학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9개 대학원을 갖추기까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속에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현재 25개국 149개 대학 및 23개 기관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는가하면 16개국 62개 대학과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었다.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 학생 수도 3년 전보다 6배나 늘었다.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는 600여 명을 넘어섬에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력의 결과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200여 4년제 대학 중 6위를 차지했는가하면 재학생 1만명 미만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교육감화역량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6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제주대는 이제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의 지식인 집단지자 비상을 꿈꾸는 제주를 떠받칠 중추기관이 됐다. 이제에는 단순한 ‘대학교’ 하나의 의미를 넘어 ‘지역’에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셈이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6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제주대는 이제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의 지식인 집단지자 비상을 꿈꾸는 제주를 떠받칠 중추기관이 됐다. 이제에는 단순한 ‘대학교’ 하나의 의미를 넘어 ‘지역’에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셈이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대학의 주인은 정부도 교수도 아닌 학생인데, 대학의 주요 관심사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평가와 지표충족에만 쏠린다는 우려의 의미를 넘어 ‘지역’에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셈이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제주대의 눈은 제주의 공국적 목표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김봉철 (제민일보) 기자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故 기당 강구범·서암 김여중·효천 강충남·소천 고인호 ‘발전기금 모금의 산파’ 역할

김명신·이시향·오헌봉·현승탁·더스틴·김병중씨 고액 기부… 1983년 기금조성 후 30년만에 9백억 돌파

1983년 6월 14일 <제>제주대학교 장학회 설립 후 30년 만인 지난 3월말 우리 대학 발전기금이 9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제주대 장학회에서 1991년 확대 개편한 <제>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학술연구·장학·연구기자재·시설확충 분야로 나눠 본격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2013년 4월말 현재 현금 766억, 물품 84억, 부동산 38억, 도서 14억 등 발전기금이 903억 3287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모금된 발전기금은 학생 복지 시설 확충 및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에 쓰이고 있다. 특히 제주대를 사랑하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러한 큰 성과를 얻었지만, 발전기금 기부가 생소했던 초창기에 발전기금 모금의 산파 역할을 한 독지가들이 있어서 900억 돌파가 가능했다.

▶기당 강구범 선생

당시 10억3천여만원 상당 함덕리 해양과환경연구소 건물 및 부지 기증

故 기당 강구범 선생은 지난 1986년 42년 만의 고향방문길에 4면이 바다인 제주도가 아직도 해양, 수산 분야 연구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10억3천여만원 상당의 해양과환경연구소의 건물과 부지를 기증했다.

재일제주인 강구범 선생은 살아생전 이 연구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직접 5차례나 제주를 방문할 정도로 부지 선정과 매입에 심사숙고했다. 부지가 매입되자 고향의 친척에게 속히 연구소를 건립토록 하고 1986년 건립공사에 들어가 2년 만인 1988년 6월 18일 연구소 개관식을 가진 후 “제주지역 해양발전에 이용해 달라”며 제주대학교에 이 연구소를 기증했다.

또한 지난 1991년에 발전기금으로 현금 1억3000만원을 기증한 강구범 선생의 숭고한 뜻과 업적을 기려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2007년 8월 연구소의 본관 건물의 명칭을 선생의 아호를 따서 기당해양관으로 명명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한 같은해에 해양과환경연구소 부지 및 건물과 연구소 지경 발전기금을 쾌척한 강구범 선생의 숭고한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당장학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지역 중·고생들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된 장학금 규모는 총 2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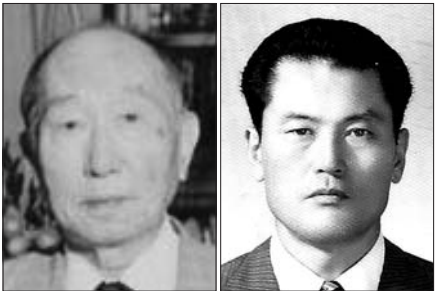
▶서암 김여중 선생

서암농원 2만8천여평 기증…

이후 제주대병원 부지로 활용

故 서암 김여중 선생은 제주시 아라동 출신의 사업가로 생전에 육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83년 4월 자신이 애써 가꾼 감귤원 9만4847㎡(2만8691평)을 제주대학교에 기증했다.

김여중 선생은 57세를 일기로 돌아가시기



故 기당 강구범 선생 故 서암 김여중 선생

4개월 전인 1983년 4월 자신이 평생 가꾼 제주시 아라1동 감귤원 9만4847㎡를 제주대에 기증,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장학회’의 기초를 닦았다. 기증한 과수원 가운데 7만 5964㎡(2만2979평)는 현재 제주대병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김여중 선생은 서암농원 기증 당시 “고향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면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든, 또는 팔아서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뜻있게 써달라”며 “내 손으로 가꿔놓은 것을 제대로 온 임자에게 돌려주는 것뿐인데 무슨 조건이 필요 하겠느냐”고 말했다(제주대신문 1983년 4월 30일자 인터뷰 기사 중).

제주대는 이러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5월 아라캠퍼스에 흉상 제막과 함께 지난 2010년 7월 제주대병원 입구에 위치한 다리의 이름을 서암교로 정했다. 또 제주대병원 1층 로비에는 서암홀을 마련했다. 특히 병원 입구에 세워진 높이 2m짜리 동상은 김 선생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있다.

▶효천 강충남 회장

발전기금 10억 쾌척…

후학 양성, 고향 발전 위해 선행

일본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실업가로, 재일 제주도민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학술과 경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故 효천 강충남 회장은 1926년 표선면 세화리 출신으로 1940년 당시 14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으로 삼아 오늘날 후지전선(富士電線) 그룹을 창업했다.

“21세기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환 중에도 친필로 제주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대학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강 회장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특히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으로 제주도 장학재단 설립기금을 출연하고, 학교법인 백두학원과 금강학원 운영에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후학들의 민족교육과 양성에 기여했다.

이같은 공로로 강 회장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1986년), 체육훈장 거상장(1987년), 국민훈장 동백장(1990년)을 수여받았으며 1988년에는 제주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故 효천 강충남 회장 故 소천 고인호 회장

▶소천 고인호 회장

“제주대 발전이 곧 고향제주의 발전”

교회장 유족도 동참해 5억500만원 쾌척

故 소천 고인호 서울제주도민회 명예회장은 1936년 제주시 화천동에서 태어나 17세에 ‘좁쌀 두말’을 안고 혈혈단신 서울로 상경, (주)건흥전기를 창립하고 기업의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1994년 건흥장학회를 설립하여 제주출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평안 요양원을 세우고 100여명의 치매노인을 돌보았다. 아울러 서울제주시우회장을 비롯해 서울제주도민회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초대 서울제주문화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제주 발전에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특히 고 회장은 “제주대 발전이 곧 고향제주의 발전”이라며 제주대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당초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고향 후배인 양원찬 박사(서울도민회장)에게 “고향 제주와 후학들을 위해 제주대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싶으니 빨리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속하루 전날 작고, 그 뜻을 못내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고 회장의 유족들은 고 명예회장이 약속했던 발전기금 보다 많은 4억 5000만원을 기탁해 고 회장의 큰 뜻을 기렸다. 고 회장은 이에 앞서 94년 5천만원, 95년 5백만원 등 5천500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다.

▶덕산 김명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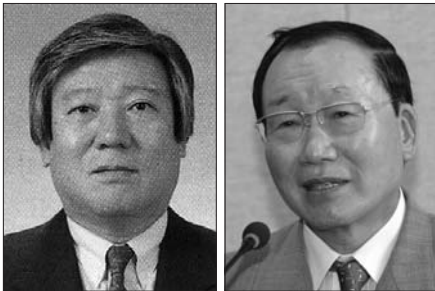
1992년부터 11억1600만원 기탁

6435평 달하는 덕산농원 기증

덕산 김명신 박사는 지난 1992년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시작으로 1995년 덕산농원(총면적 2만1276㎡,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설 연구실습센터 감귤원으로 활용)을 기증하는 등 지금까지 현금을 포함해 모두 11억 1600만원을 제주대에 출연했다.

1939년 일본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씨는 광복이 되던 해 귀국했지만 찢어진 게 가난한 현실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구열이 남달랐던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문판이와 관공서 사한 생활을 하면서 제주제일중과 부산 영남상고를 졸업했다. 훗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2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74년과 76년에는 (주)대동케미칼, (주)대립화학을 설립해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덕산 김명신 박사 이시향 박사

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 석탄산업훈장, 제주도문화상, 경남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제주국제협회의 고문, 제주상의 고문,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장,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대는 기부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제주에 기부 문화의 초석을 닦은 김씨를 위해 1995년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사슴동산에 김씨 내외 공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시향 박사

발전기금 13억 기부…

후학양성에 흔쾌히 쾌척

이시향 박사(전 제일민단 동경본부 단장)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8억원과 5억원 등 모두 13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시향 박사는 1937년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 출신으로 제주상고 재학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으로 삼아 오늘날 일본 동경에서 (주)월드상사, (주)다카라공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박사는 또한 제일민단 동경본부 단장을 역임하면서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운동, 무연금 노인 구제활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00만원, 민단 동경본부 회관 건립에 1000만원, 환경면사무소 건립에 한화 5000만원 등을 기부했다. 이에 제주대는 2010년 7월 30일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시향 박사는 “제주대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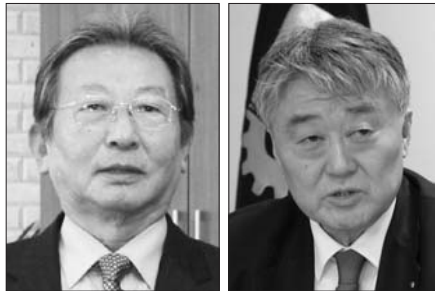
▶오헌봉 유성건설(주) 회장

1988년부터 10억8250만원 기부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발전”

제주지역 대표적 기업가인 유성건설(주) 오헌봉 회장은 지난해 60주년 개교기념식에 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하향진 총장에게 전달했다. 제주대는 이 기금중 3억원은 유성기금으로 적립해 장학금에 사용하고, 5000만원은 인재양성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오 회장은 이날 전달한 3억5000만원을 포함해 1998년부터 대학발전기금 9억8000만



오헌봉 유성건설(주) 회장 현승탁 (주)한라산 회장

원, BK21 대응자금 6250만원, 친환경누리사업단 대응자금 40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10억825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제주대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실천 정신 등을 기려 2006년 오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오 회장은 “후세 교육에 대한 일념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제주대를 택해 기금을 내놓게 됐다”며 “제주대가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승탁 (주)한라산 회장

대학발전기금 8억1500만원 기부

10년간 30여억원 지역사회 환원

제주지역 소주업체인 (주)한라산의 현승탁 회장은 지금까지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총 8억1500만원을 쾌척했다. 현승탁 회장은 1996년과 2001년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각각 1억원을 기탁하고, 2006년 기금 5억원 이상 출연을 약속한 뒤 6억1500만원을 쾌척, 지금까지 총 8억1500만원을 출연했다.

현승탁 회장은 최근 10년간 30여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제주사랑·문화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주지역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하는 한라산소주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대를 비롯한 초·중·고 장학금(12억 8150만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기부금, 지역사회 발전성금 등으로 수 십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특히 한라산소주는 2006년 제주관광의 해 홍보를 시작으로 소주의 보조 상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명소, 축제, 지역명품 등 대도민 정책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승탁 회장은 “제주의 향토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며 제주의 지역명소와 지역명품의 이름을 알리고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레데릭 더스틴 전 제주대 교수

10년째 발전기금 총 5억8천만원 기탁

김영미로공원 수익 지역사회 환원

제주대 관광경영학과에서 2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프레데릭 더스틴씨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10년째 총 5억8334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미로공원 설립자인 더스틴씨는 지난



프레데릭 더스틴 전 교수 김병중 S.I.N CRC(주) 회장

2003~2005년 외국인 기금교수 재원으로 9200만원을 제주대에 지원했고, 2006년부터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수학생 장학금, 외국인교수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대에 기탁한 발전기금은 27일 개교기념일에 기부한 1억원을 포함해 모두 5억8334만원에 달한다.

제주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 부근에서 미로공원을 운영하는 그는 애초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의 8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긴 것이 제주대와 노인대학, 김녕에 있는 오탁클럽 지원이다. 미8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71년부터 9년 동안 제주대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세종대·홍익대 등을 거쳐 82년부터 94년까지 다시 제주대 교수로 근무했다. 지난 2006년 제주대로부터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병중 S.I.N CRC(주) 회장

2007년 발전기금 3억 쾌척…

고향발전 위해 선행 펼쳐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38년간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인으로, 재일본제주도민회 활동을 하면서 재일제주인의 단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김병중 S.I.N CRC(주) 회장은 지난 2007년 사재 3억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김씨는 제주시 오라동 출신으로 1957년 옛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동양대학(경제학부)을 졸업했다. 그는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38년간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인으로 활동하면서, 재일제주인의 단합과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제주대학교의 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추진계획 소식을 접한 김 회장은 연구센터 건립에 보태달라며 2007년 초 익명으로 1억원을 기부했으며, 그해 5월에는 2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김 회장은 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와 제주북교에 각각 1억원과 1000만원 등 모두 4억여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벌였는데 사재를 털어 4·3유족회와 4·3연구소에도 수년째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 다. 30여년 넘게 자신의 고향인 오라동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행사에도 해를 빼먹지 않고 십시일반 기부를 해오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였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김창인 회장 162억 쾌척… ‘실천철학’ 수련장 문 열어

제주대 발전기금에 가장 많은 금액을 쾌척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김창인(84) 남해화관 회장이다. 지금까지 총 162억5680만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은 문화교류관 건립기금, 재일제주인센터 운영기금과 연구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김창인 회장이 낸 기금은 제주대 발전기금 총액 906억 1500만원(5월 23일 기준) 중 17.9%에 해당한다.

김창인 회장이 후학들을 위해 대학에 처음 발전기금을 전달한 것은 2008년 3월. 30억원을 기부했다. 당시 제주대 발전기금 모



김창인 회장

금 역사상 개인 최고 금액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인 김창인 회장은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김창인 회장은 오사카 신사이바시에서 가장 큰 서점 중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남해화관의 회장으로 있다. 사업에서 이룬 성과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고향에도 큰 애정을 가져 수도, 전기, 마을회관 건립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

1946년 오사카에 정착해 막노동을 시작으로 현재 남해화관 회장에 이르기까지 김창인 회장의 인생이야기가 사람들에게로부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김창인 회장은 저서 출판 등을 통해 실천철학을 알리고 있다. 저서를 통해 김 회장은 “원리란 진정한 천지의 도리이며, 숭고하고 존귀한 천의천명(天意天命)”이라며 “원리에 근거한 진실추구와 실천추구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지난 19일에는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기리는 ‘실천철학심온오도탑’이 애월읍 봉성리에 세워졌다.

이날 자리에는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양성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고충석 전 총장, JDC 강승화 본부장, 현지방 전 제주시장, 봉성리 주민, 김동욱 경영사업단장, 이창익 재일제주인센터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교양수업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총 12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건립된 실천철학심온오도탑은 중국에서 제작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353·2번지에 지어졌다. 높이 10m, 폭 15m로 1년 2개월에 걸쳐 120여명의 일본인 기술자가 참여해 세워졌다. 부지는 3300㎡(1000평)에 이른다.

이날 자리에서 김동욱 경영사업단 단장은 “실천철학 심온오도탑 준공식은 그간 김창인 회장의 개척정신과 함께 노력과 애의 교육의 장을 마련을 통한 훌륭한 사회인의 양성과 국가 사회의 발전 및 평화의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장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만 약 90억 원을 들여 심온오도탑 건립을 추진해 2012년 10월 20일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향진 총장은 축사에서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실천철학 심온오도탑이 지어져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천지신명과 조상에 대한 감사, 청렴과 정직, 약속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애월읍 봉성리에서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기리는 ‘실천철학 심온오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대학은 이 공경탑이 세워진 부지를 ‘제주대학교 야외학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양과목인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 등 재일제주인 관련 수업과 연계하거나 재일제주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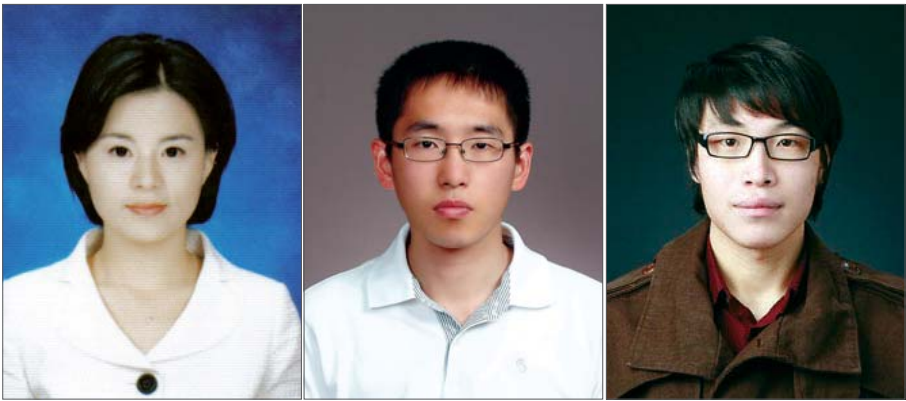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 6월 2일에는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기리기 위한 ‘천지대자연오론 공경탑’ 제막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앞으로 제주대는 이 공경탑을 김해 김씨 일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개방한다. 관계자는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이 조상들의 일을 되새기는 성지로 만들 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 변호사 시험 최종합격한 본교 학부 출신 동문들

“지방대 출신 약점 NO! 꿈의 크기만큼 성장” 한목소리



고민정 (영어영문학과 졸)

김용학 (법학과 졸)

한성수 (행정학과 졸)

고민정 동문

“다른 분야 10년 활동 후

뒤늦게 법전원 준비...

스터디 모임 통한 학습 주효”

김용학 동문

“군전역 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도전...

기본에 충실한 게 합격 비결”

한성수 동문

“교수님들의 열성지도 큰 힘...

장학금 전액지원 받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변호사 시험에 부담은 없었어요. 오히려 교수님과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 다. 다행히 이번 변호사 시험에 제주대 출신 동기들 모두가 합격해 기뻐요.”

2010년 로스쿨에 입학한 고민정 동문(영 어영문학과 00년 졸업)은 제주시에 한 법률 사무소에서 한창 수습과정을 밟고 있다. 김 용학 동문(법학과 07년 졸업)과 한성수 동 문(행정학과 10년 졸업)도 각각 제주와 서 울에서 수습 생활을 하고 있다. 김용학 동문 은 제주시에 한 법률사무소에 수습과정을 밟고 있다. 한성수 동문은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수습실무를 받고 있다. 이들은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치면 비로소 변호사의 꿈을 이루게 된다.

이번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학생은 모두 27명이다. 이 중 세 명이 제주대 학부 출신 이다. 고민정·김용학·한성수 동문이 지난 1 월 치뤘던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영 예를 안았다. 특히 이들 합격자 중 2명은 법 전원 진학 후 법률 공부를 처음 시작해 이같은 성과를 이뤘다. 제주대 학부 출신으로는 처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만났다.

“전역을 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갖고 도전했다”는 김용학 동문은 법

학과를 졸업하고 장교로 입대했다. 2년 간의 복무를 마친 뒤 전공을 살려 법전원 입시에 도전했다. 군복무하는 동안 학부생 시절 공부했던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기초에 충실한 입시 준비로 법전원에 진학했다.

고민정 동문은 대학 졸업 후 호기심으로 통영대학원 한영과에 진학했다. 대학원 졸업 후 기상캐스터, 영어 강사와 통·번역 프리랜서 등으로 다방면으로 활동하다가 뒤늦 게 법전원 입학준비에 뛰어들었다.

한성수 동문은 “최초 합격자 발표 당시 탈락 통보를 받고 낙담했으나, 다행히 마지막에 추가 합격을 통해 입학하게 되었다”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동문은 대학 졸업 후 법전원 입시를 지원 해 합격했다. 법전원 유치 소식을 듣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변호사 시험에 ‘뚝딱’ 하고 합격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부족한 법률지식 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고민정 동문은 학 업 부담으로 휴학을 생각하기도 했다. “1학년 초에는 변호사 시험 준비와 학교 수업을 각각 따로 공부했다”며 “시간도 부족하고 진도도 밀리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 다.

이들은 부족한 법률지식은 학교 수업에 충실한 덕에 터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 동문은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살펴봤다”며 “어려운 책을 본다고 해서 급격히 실력이 늘 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 다”고 했다.

고 동문은 “수강 후 책을 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늘려 학업과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 다”고 했다. 그는 또 “스터디 모임을 통해 1기 선배와 동기들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법전원 과정은 공부 분량이 매우 방 대해 3년 안에 그 양을 소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들은 “학교 시험과 변

호사 시험을 병행해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한다. 한 동문은 ‘공부의 양은 방대하 지만 답안지의 서술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 어 있다’는 윤은경 교수의 말을 듣고 키워드 를 중심으로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 비결로 교수진·선배·동기 그리고 로스쿨의 다양한 프로그 램 등을 꼽았다. 김 동문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대해 공유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선배와 동기에게 서로 조언하고 도왔다”고 말했다. 고 동문도 “교수님, 동기와 한라산 정상 등반으로 깊은 유 대를 쌓았다”고 말했다.

한 동문은 “교수님들께서 원생들의 변호사 시험을 위해 학생 개개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강과 동영상 강의 등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재 정 지원을 받은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 었다”면서 “주말을 이용해 도서관이나 종교 활동으로 수험생활에 대한 자신감 찾았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에게 ‘현재 자기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방대 출신이 라고 소위 수도권 명문대생을 부러워할 이유 는 없다”며 “제주대 학생들도 수도권 학생보다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부생 시절에 더 큰 꿈을 가져야 한다”며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일이 닳는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 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는 조언도 잊지 않 았다. 또 고민정 동문은 제주대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분제와 탁구 동아 리 활동을 하고 학교 연극,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김용학 동문은 “ROTC와 동아리 활동 등 의 경험을 했고 법전원 합격에 큰 힘이 됐 다”고 했다. 그는 또 “법전원 입시에서 관련 도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전문·교양 서적 읽기를 게을리 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보냈다.

한성수 동문은 “지금 재학 중인 후배들은 모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며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 지를 전했다.

고민정 동문은 “부담감이 크겠지만 마음 을 편히 가지고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용 학 동문도 “후배들이 미래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 인터뷰 - 고호성 법학전문대학원장

“우리 목표는 전국 5위권에 드는 것”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전국 평균보 다 높게 나왔지만 한편으로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떨어졌다. 아쉽지는 않은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고 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학전문대학원은 여기서 만족하면 안된 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 5위권 안에 드 는 것이다. 앞으로 구성원들이 좀 더 힘 내서 더 좋은 합격률이 나왔으면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장학금, 기숙사 우선 입주, 교육 프 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법학전문대 학원만의 특색은 학생들끼리 서로 돕고 있는 문화를 꼽을 수 있다. 동기끼리도 서로 도와가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 고 있다. 또 선배들도 후배들을 위해 멘 토링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선배 들이 돕는 것은 교수가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변호사 시험 을 1, 2년 전에 치른 선배들이 후배들에 게 시험이나 대학원생 공부를 하면서 느 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말해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법학전문 대학원은 경쟁이 아닌 협력하는 분위기 가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평소에도 본교 출신 학부생이 법학전 문대학원에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하는 결로 있는데, 그 이유는?

“학부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 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로스쿨의 취 지는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양성해 전문적인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법과는 상관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는 1차로 학점, LEET(법학적 성시험), 영어 성적 등을 보고 2차에서 면접을 본다. LEET 시험은 법을 묻지 않는다. 논리적 추론과 같은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면접을 진행할 때도 법과 관련한 내용은 일체 묻지 않는다. 학부 생 중 LEET 시험 성적이 없어 지원하 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아쉽다. 학생 들이 정보를 찾아서 많은 학부생들이 우 리 로스쿨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 부분도 안타깝다. 사



회적 배려자 전형은 신체적·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 유공자 등에 한해 4 명을 뽑고 있다. 이 전형이 정원을 채우 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쉽다. 아무래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 각해서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일정 성적 만 넘기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 다. 조금만 여건이 된다면 준비해서 법 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으면 한다.”

▶이번에 제주대 학부생 출신 합격자들 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주대 출신 학부생이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돼 기분이 남다르다. 게다가 법정대 출신이 아닌 영어영문학과 학생 이 합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학부에 상관없이 로스쿨에 갈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 한다. 이처럼 법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 출신들이 제주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 다. 앞서도 말했지만 로스쿨의 기본 취 지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변호사로 육성시켜 전문적인 법무사가 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생 중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걸맞은 학생 이 나와서 반갑다. 또한 행정학과, 법학 과 출신의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힘써준 분들에게 한마디.

“로스쿨이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대 로 스쿨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하 겠다. 유치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을 위 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농협, 제주은행 등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동현 기자

2013 ‘아라대동제’ 28일 오후 7시 개막

야외음악당·한라터 등지서... ‘나도 아라스타’ 신청받아

풋살대회·길거리농구·먹방콘테스트 등 부대행사도 마련

개교 61주년을 기념하는 2013 아라대동 제가 28일부터 3일간 아라캠퍼스 야외음악 당 등지에서 열린다.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축제 개막 식은 28일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야외음 악당에 설치된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29 일에는 대학 공식휴강일로 지정됐다.

식전행사로 관현악 플래시몹, ‘주먹이 운 다’ 등이 진행된다. 음악학부 관현악단 30 명과 총학생회 2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관현악 연주와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어 ‘주먹이 운다’에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 본 행사 에서는 허형진 총장 축하, 김태환 총동창회 장 격려사, 유병선 총학생회장 인사, 개막선 연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시부터는 즉석계 입, 동아리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진행 된다.

특히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장 기자랑 무대인 ‘나도 아라스타’는 오는 30 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에 진행된다. 이 행사 는 노래, 춤, 풍트 등의 순서로 각각 진행된 다. 이후 심사와 시상이 이어진다. 참가접수 는 분야별로 나눠 받으며 오는 13일부터 23 일까지 한다.

대동제 기간에 청년 특강도 열린다.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사회과학대학 중 강당에서 안태호(청년유니온)씨가 ‘폐인 돈 받아드립니다’를 주제로 청년 노동법 특

강을 연다. 30일에는 김종오(책쟁이·행정 학과 4·제대로 공동대표)씨가 ‘청춘이 청 춘에게를 주제로 오후 두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강연을 연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린다는 대동 제에 취지에 맞게 교직원들도 대동제에 참 가한다. 교직원 음악연주 동아리는 29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야외음악당에 마 련된 메인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14명으로 구성된 이번 교직원 참가자들은 기타 연주 와 성악을 선보인다.

소외계층을 위해 수익금 마련을 위한 따 뜻한 행사도 진행된다. 30일 오후 4시 메인 무대에서는 집에서 입지 않는 옷과 생활용품 등을 모아 장터를 연다. 수익금은 보육원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총은일만배 5:5 풋살대 회(29-30일 옹광밭) △총은일만배 3:3 길 거리 농구대회(28-29일 한라터) △주차왕 을 찾아라(29일 오후 1시~4시 본관 앞 주차 장) 등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먹방 콘테 스트 △희망거리(옹광밭길 28-30일) △교 직원공연(29일 오후 4시~5시 30분 메인무 대) 등이 진행된다.

홍성훈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의 테마는 ‘흔들리는 청춘에 꿈을 더하라’로 정 했다”며 “취업난에 힘든 학생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아라대동제 일정표

28일 화요일	
18시 30분	동아리공연(로망스)
19시	개막식 (총장·총동창회장 축하)
21시	축하공연 (에일리, 배치기)
29일 수요일(공식 휴강일)	
14시	청년 특강 (청년유니온은 대표 안태호)
17시	내 친 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18시	동아리 공연 (교직원·학생동아리 공연)
20시	축하공연 (다이나믹듀오, 자이언티)
30일 목요일	
14시	청년특강 (책쟁이 김종오)
17시	나도 아라스타 (학생 장기지랑)
20시	대동제 폐막식
21시	불꽃놀이쇼 축하공연(릭스, 다비치)

더불어
잘사는 나라



NH농협은행이 **출범 1주년**을 맞아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용 NH-CA자산운용

교수시론

‘88만원 세대’를 극복하는 길



남진열
행정학과 교수

“
취업의 어려움을 사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노력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졸업생들이 최소한의
평등한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한다
”

독자기고

제주대 박물관, 더 많은 홍보 필요



이지은
관광경영학과 4

학교 정문에서 올라가는 길 왼편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박물관 인지 정확히 알고 있거나 방문하여 관람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필자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 중인 것을 봐왔었다. 하지만 무엇을 짓는지 관심도 없었고 정확히 알지 못했다.
우리대학 박물관은 올해로 4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왜 박물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도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몇 년간 로스쿨 유치, 의학전 문대학원 설립, 아라뮤즈홀을 개관하는 등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 왔다. 아라뮤즈홀의 경우에는 450석의 규모로 다목적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총 사업비 110억 원과 약 2년간

에 걸친 공사가 무색할 정도이다.
물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거니는 제주대학교 벗(朋)길 나들이’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제주대학교 이해하기 - 우리 팀을 닮은 유물을 찾아라! 등 행사를 열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많이 홍보되지 않아 공모전이 개최됐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작년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처음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팀원들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유물은 이름과 기본 설명만 있을 뿐 각각의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 묵혀 있던 제주만의 소중한 독특한 유물, 향토자료들과 우리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신축이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에 따라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만큼 제주대 학생들뿐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더 각광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필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홍보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때이다.

듯하다.
그러나 88만원세대라는 꼬리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학생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인생목표로 확고하게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졸업생의 취업률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지표 10가지를 토대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고, 10가지 지표 중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가지 지표는 기준을 설정,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추가 선정된다. 그만큼 졸업생의 취업률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인 제주지역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대학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대학의 역할을 몇 가지만 제시해 보면, 첫째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대학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조아영
언론홍보학과 1

지난해 수능 공부에 매달리던 나는 수능을 치르고 제주대에 들어오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때는 대학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웅장한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키면서 인정한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떠올렸다. 또한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바람에는 긴 생머리를 날리면서 한손에는 전공책을 들고 낭만적인 캠퍼스를 걷는 모습도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가면 살빠지고 이빠진다는 엄마의 말과 다르게 학교를 다닌지 한 학기가 된 지금 친구들과의 술자리 때문에 고3때와 비슷한 몸무게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밤마다 과제를 하면서 내 환상속에 있는 대학과는 다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대학에 입학한지 석달 밖에 안 됐지만 지난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꽤 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율성이 크게 강조된다. 시간표도 직접 짜고 웃도 마음대로 입으며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표에 따라 공부한다. 대학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수강

서 어떤 학문과 어떤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대학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산학협동으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대학에서 배출할 때만이 취업률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지부 대학의 졸업생이 제주지역 일자리 잡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육지부의 고급인력이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대학 졸업생이 육지부 대학 졸업생과 평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 일자리의 잡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제(대학생=88만원세대)를 부정 또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 개인은 취업의 어려움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대학은 졸업생들이 최소한의 평등한 자격을 갖추고 취업시장에 뛰어 들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신청을 통해 직접 시간표를 구성하고 내가 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어갔을때 진짜 대학에 들어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현재 시간표는 공강시간이 많지만 매일 학교에 나온다. 공강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수업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복을 입는 것과는 달리 정해진 복장이 없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될 때가 많다. 의복은 일종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날 무얼 입을까 고민이 되며 차라리 교복을 입었던 때가 나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렇지만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을 수 있고 매일 마다 내일 무얼 입을까 고민을 하며 점점 더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 같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일은 교육방송국에 자원한 것이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방송 일을 배우는 지금이 무척 재미있다.
필자가 감명깊게 읽은 책 중에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이기에 이 청춘을 즐기려고 한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해 후회 없는 청춘을 만들 것이다.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3> 가수 최성원

“관광지에서 음악 틀지 말고 자연의 소리로 힐링하자”

‘떠나요 돌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등국화 리더인 가수 최성원(59)의 ‘제주도의 푸른 밤’은 성시경, 유리상자, 울랄라세션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 해은이의 ‘감수광’이 제주를 대표하는 노래의 원조라면, 최성원의 노래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등국화 멤버 최성원씨

이미 6년 전 제주시 애월읍에 첫 정착한 그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지내며 작곡에 몰입하고 있다. 최근 KBS 불후의 명곡 ‘등국화편’ 녹화와 ‘다시, 행진’ 콘서트를 마치고 다시 제주로 돌아온 최성원씨를 지난 12일 만났다. 희끗희끗 보이는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에서 나이가 엮보였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만은 세월이 비껴간 듯했다.
“1987년 등국화 해체 후 울적한 마음에 제주도로 무작정 배를 타고 여행을 왔어요. 노사연의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작곡한 김옥 선배가 서귀포에 살았는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버스를 타고 제주 구석구석을 다녔지요. 그 때 아름다운 제주에 반했죠. 김옥 선배의 딸 푸르매에게 노래를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울로 왔어요.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곡이 ‘제주도의 푸른 밤’입니다. ‘떠나요 제주도 푸르매가 살고 있는 곳’의 푸르매는 김옥 선배의 딸인 거죠.” 그 후 그는 1년에 서너차례 제주를 찾았고, 처음 애월의 바다풍경에 빠져 살다가 지난해 서귀포시 법환동으로 이사했다.

최성원의 아버지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씨다. 어려서부터 탁월한 작곡 실력을 보인 그는 아버지가 사준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다. 등국화의 ‘제발’, ‘그것만이 내 세상’, ‘매일 그대와’, ‘사랑일 뿐이야’를 작곡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공보다는 등국화를 통해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아버님은 음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런 평생을 제주에서 여유롭게 음악하며 살고 싶습니다.”

최성원이 활동한 등국화는 1985년 1집 ‘행진’을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등장, 총 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후 1987년 해체했다. 등국화의 1집 앨범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최고 명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등국화 재결성 이후 ‘다시, 행진’을 주제로 콘서트를 열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감싸 안으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 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노래는 지친 청춘들에게 바치는 등국화만의 감성적 응원가다.

그런 그가 늘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찾은 곳이 제주도다. “저는 제주의 자연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탁해진 감각세포들을 정화하기에는 제주의 자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변 길을 산책하며 작은 것에 행복해하며 살고 있죠. 물론 제 절연 항상 음악이 있습니다.”
그는 제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현대인들이 도심 속에서 접하는 수많은 소리는 대부분 ‘소음’ 뿐이라며, 자연의 소리에 힐링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제주를 찾는다는 것이다.
“제주 관광지에서는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등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도 한 몫 하지만,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이들을 위해 바람소리, 낙엽소리,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5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사진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press@jejuun.ac.kr ■ 문의=754-2277-2279



2012 IWSC
국제주류품평회
금상 수상

한라산 소주는 1만 아라민(我羅人)을 응원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화산암반수를 통째로 담았다

(주)한라산
www.hallasan.co.kr

제주산 발벼로 한 단계 Up



» 제주대학교 미니 기네스북

제주대의 ‘최고·최다·최저·최소’를 찾아라

제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어느 곳이고, 가장 나이 어린 재학생은 누구일까요? 개교 61주년을 맞아 제주대신문에서는 우리 대학의 최고, 최다, 최저, 최소를 찾아 ‘제주대 미니 기네스북’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대학의 갖가지 진기록을 살펴보고 애교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취재=김동현 기자/일러스트=편집=김소영 기자

가장 오래 근무한 교수는?



김양순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37년 10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우리 학교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유창한 영어실력을 자랑하는 김양순 교수는 평소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인품의 교수님이라고.

가장 늦깎이 재학생은?

만 59세의 교수선 (의류학과4) 씨, 조부모의 반대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으나, 학구열을 누르지 못해 뒤늦게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2010년 대학에 입학, 손자뻘 학생들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과 해양과학대학 2호관. 1977년 용담동에서 아라동으로 대학 이전시 지어진 이 건물은 올해 36년이나 됐다고, 시설과 관계자분들은 특별히 건물안 전에 신경을 쓰셔야 할 듯.

가장 오래된 박물관 유물은?



한경면 고산리에서 출토된 토기, 화살촉, 창으로 신석기 시대에 쓰여진 유물(B.C 8000년). 우리 대학 박물관에는 진귀한 유물들이 참 많은데, 학생들은 알랑가 몰라~? 더 많은 유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박물관으로 고고쟁.

우리 대학 박사 제1호는?



양승주 동문으로 1981년 제주대에 대학원 박사과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1986년 2월 농학박사학위를 취득. 당시 같은 과 김동철 동문이 함께 학위를 받았으나 학번이 늦어 '1호 박사' 자리를 양보했다는 후문.

최초로 문단에 등단한 동문은?

1회 졸업생인 고 양중해 동문으로 1959년 '사상계' 7월 호에 「그늘」이라는 시가 추천돼 등단. 한편 신춘문예를 통해 첫 등단한 동문은 김영화(1965년 국문 졸) 국문과 명예교수로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인 소설의 구조」라는 평론으로 등단.

최연소 재학생은?



만 17세의 김혜성 (의류학과 1) 씨. 가장 늦깎이 재학생과 최연소 재학생이 모두 의류학과라는 점이 특이하다. 올해 꽃다운 나이의 낭랑 17세인 그녀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며 또래들보다 일찍 사회의 쓴 맛(?)을 보고 있다고.

최연소 교수는?



교무과 인사담당자에 의하면 전임교원 중에서는 김송이 (의학과) 교수가 1978년생으로 최연소 교수. 30대 중반으로 풋풋한 외모와 도도한 매력으로 못 남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늘 최고의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지만 속은 누구보다 알찬 교수님!

GUINNESS BOOK

최연소 박사과정 입학생은?

강나래 (해양의생명과학부 졸) 동문. 26살이 되던 올해 박사과정에 입학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아라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아라캠퍼스에 식재된 나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종은 왕벚나무로 모두 475그루가 있다. 4월이면 벚꽃엔딩의 피날레를 장식하지만, 겨울엔 앙상한 가지로 스산해진다.

가장 많은 출신 고등학교는?

남학생-제주제일고, 여학생-제주중앙여고 (2013년도 정시입학자 기준). 우리 학교 남학생 100명 중 21명은 제주일고 출신 (21.15%)이고 여학생 역시 100명 중 21명 (20.69%)이 중앙여고 출신이니, 여기 나온 학생들은 동창회 갈 필요가 없겠소.

아라체전 최다 우승 단과대학은?



2002년 이후 아라체전에서 자연과학대학이 총 6회 우승을 차지.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거푸 우승했는데,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는 자연대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우승을 하는데 체육학부가 숨은 주역이 아닐까요?

경력관리 최고 점수자는?



문형석 (행정학과 4) 씨로 딱히 점수를 높게 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뒤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경력관리 점수 내용과 한 일이 많이 일치돼 이 같은 실적을 내게 됐다고. 열심히 사는 당신, 아름답소!

가장 큰 식물은?



사슴상 남쪽에 있는 푸조나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로 인증. 정문에서 해양과학대학 3호관으로 진입하는 삼거리 옆에 위치해 있다. 이 나무는 성인남자 세 명하고도 반 명(?)이 손을 모두 펼쳐야 닿을 정도로 아름답리를 자랑한다.

» 3행시·5행시 퍼레이드

제주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

제 주도를 주 도하는 대 한민국 명품대학	제 주대학교의 주 인은 대 학생이다.	제 주대학교의 주 사위는 대 학생들의 손에 쥐여졌다.
박기환 (국어국문학과 2)	강사흔 (체육학과 2)	이가현 (언론홍보학과 2)
제 주대의 61년이 주 마듯처럼 스쳐 지났다. 대 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 주대에 와서 나는 주 정행이가 되었다. 대 학의 낭만은 역시 술!	제 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 인되는 삶을 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 학에 입학해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민성 (언론홍보학과 3)	고경희 (국어국문학과 3)	조승재 (통신공학과 2)
제 라 짜증나! 주 차단속 딱지 붙여전! 대 박 싫어! 학 교에 차 세우면 안돼? 교 실에 세운 것도 아닌데	제 주대학교에서 축제를 합니다! 주 점도 하는데요. '술인기몰랑' 주점에서 대 한민국, 중국, 일본 등 국제 불문하고 학 우 여러분을 위하여 교 수님 제외.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주 인공이 되어라. 자신의 삶에서 대 단하지 않더라도 학 (확)실하고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교 육적이고 만족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근 (식품공학과 4)	유명한 (언론홍보학과 4)	임현승 (법학과 4)

reddot design award winner 2013

2013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제품디자인 부문
한라수 '레드닷' 수상

물한병에 제주를 담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 청정지역에서 끌어올린 한라수는 천연화산중음 거치면서 만들어진 순수한 화산암반수입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JEJU NATURAL WATER
제주 한라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수 hallasu 회오제주 워터+ 한라수감출